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6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10일(음력 7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종교지도자 양성大’ 축소 중앙승가대, 변화로 넘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 전공 교육당국 일반 계열로 분류
지난해 평가로 불이익 받아 지정고시 개정안서 제외도

중승대, 올해 학제개편 단행 ‘승가학부’ 전공 통합 일원화
사회복지, 교양과정으로 전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회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육부가 예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이 종교계의 반발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절반가량 줄일 것을 고지했고 이에 따라 장로·장신·침례 등 개신교계 신학대학들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됐다. 중앙승가대 운영 법인 승가학원도 지정고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간 학제 개편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해당 파고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8년 첫 고시 이후 17년 동안 폐교, 학과 개편 등이 이뤄짐에 따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시 제정 이후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종교인 양성과 관련 없는 학과들이 다수 개설됐다. 이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재지정·고시하려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공들을 종교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교과로 분류하지 않는 추세다.

실제, 중앙승가대는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평가에서 스님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설했던 ‘사회복지학 전공’이 종교지도자 양성 전공이 아닌 일반 전공으로 분류돼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에 중앙승가대는 학제를 개편해 불교학부, 불교사회학부를 ‘승가학부’로 통합하고 △불교·역경 과정 △선명상상담 과정 △포교(실천불교) 과정 △불교문화유산 과정으로 교과과정을 정리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학 전공은 교양 교과과정(자격인증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 같은 적극적 대처로 중앙승가대는 9월 1일 교육부로부터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으로 재지정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고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 신청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 관계자는 “학제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을 교양 교과과정으로 전환했고, 교육부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임이 인정돼 내년부터 국가장학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예고된 지정고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다시 국가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인정한 만큼 본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은 현재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기준을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인의 역할이 공공복지, 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됐음에도 자격증 취득 관련 전공들을 일반 전공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과의 지속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 기준을 통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커리큘럼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목표”라면서 “사회복지 등 공공사업에 대한 종교인의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WISE캠, 불교동아리방 ‘가람당’ 현판 제막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에 청년 불자들의 새로운 도량, 불교학생연합 동아리방 ‘가람당’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9월 2일 학생회관 5층 가람당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류완하 총장을 비롯해 정각원장 법천 스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모이는 가람당이 배고픈 이나 마음이 고픈 이 모두 찾아와 상담하고 대화하며 공부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현재 WISE캠퍼스에는 불교문화대학 ‘부르나’를 비롯한 7개 불교동아리에서 2300여 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직무정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9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혜정 스님은 지난 4월 14일 총무원 감사국이 실시한 동화사 특별감사를 거부했고,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세 차례에 걸친 특별감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종단이 4월 24일 오전 11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행정지시에도 불응했다.

징계위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사찰법’과 ‘종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7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징계개시를 결정하고, 8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의 소명을 청취한 바 있다.

〈관련 기사 3면〉 김내영 기자

급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선교 창구’되나

미래 인재를 길러 내는 신성한 교육공간인 학교가 편향된 종교적·정치적 가치관을 이식하는 ‘선교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극단적 교리와 극우적 사상을 가르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리박스쿨’처럼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등에서 편향적 교육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여기에는 “대안학교 설립으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목사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다.

“대안학교 세우면 기독교 국가 된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의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세계로교회는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을 설립한 후 올해 3월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아카데미의 학교 설립(인가) 계획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교명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사용한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계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올해 2월 열린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에서는 “교회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을 가르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하다.

전국 기독대안학교 400곳 추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독대안학교는 313곳으로 집계됐는데, 현재는 최소 40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개신교는 지난 20여 년간 ‘1교회 1학교 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90년대 교회 등을 주축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유·초·중등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100여 개의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시도 교육청에 등록했다. 법 제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바우처’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직접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관련 법 개정 적극 나서

이런 흐름은 정치인들의 지원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제 의정 활동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독교 교육단체들은 정치권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자율성 보장과 교육바우처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교육,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올해 6월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는 잘못된 이념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 침투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승만·박정희스쿨’을 뜻하는 리박스쿨은 겉으로는 역사 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에서 기독교 교리와 정치적 이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독대안학교에서 극단적인 종교관과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뉴스 보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기독대안학교들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놓친 다양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특정 종교와 이념을 전파로 변질된다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일부의 편향된 행태로 대안교육 전체가 불신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여수령 기자

2025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일시 2025. 9. 27. 토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10:00~10:20 개회식 사회: 심성학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세션 1 좌장: 박근영 한마음과학원 회원
10:30~11:30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
발표: 박진영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미국 토론: 청동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11:45~12:45 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白雲和尙(1298-1374)의 생애와 사상
발표: 야닉 브뤼느통 파리 시테 대학교 교수, 프랑스 토론: 혜유스님 한마음아카데미, 독일
세션 2 좌장: 김종훈 김종훈치과 원장
14:00~15:00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
발표: 원하이밍 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토론: 김재영 산동대학교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중국
15:00~15:50 오공(五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중심으로
발표: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16:00~16:30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 - 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에서
발표: 오영국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토론: 양영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7:00 수행으로서의 축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발표: 박진영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토론: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17:10~18:00 종합토론 좌장: 이화행 동명대학교 교수
18:00~18:20 폐회식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

조계종 종평위, 8월 29일 입장문
김형석 관장 예배 장소 제공 '유감'
종교편향특위도 편향 행위 규탄
"공공기관, 중립 서비스 제공해야"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 내에서 예배 등 종교행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따라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관장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서초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과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했고, 일주일 뒤에도 서울 종로의 한 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한 사실이 알려져 종교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ROTC 행사 개최, 직원 의전 동원, 비공개 수장고 개방 등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8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공기관의 특정 종교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한 종평위는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를 편드는 행위는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9월 1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김형석 관장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공유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8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을 통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래전부터 국가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종교 편향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종교계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가 결코 좌시해선 안 될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보다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편향을 드러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정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직권 남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 내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종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는 물론 국민 모두와 연대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 이하 불교인권위)도 '독립기념관장은 사죄하고 물러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9월 4일 대변인 성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관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태고종은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나아가 해당 당사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추진본부, 종단에 '개선안' 제출하고 관심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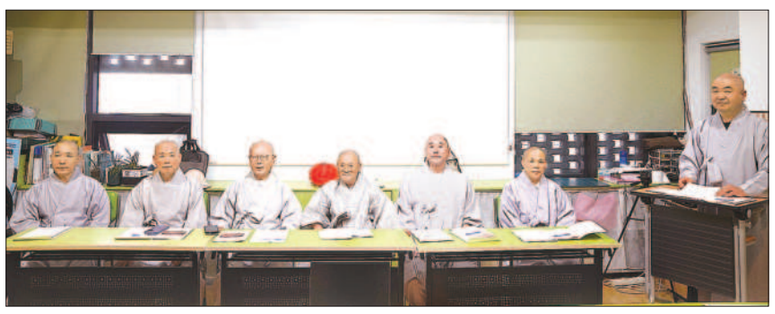
9월 3일, 총무원·중앙종회에 제출
"전국 대다수 스님 직선제 선호"
종단 차원 논의–관련 입법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직선제 개선안'을 전달하고 종단 차원의 논의와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개선안 제출 직후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 가까이 전국 스님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3종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일문 스님, 마음정원 대표 선엽 스님, 전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이 참석했다.

추진본부는 "지난 1년간 전국의 스님들을 방문해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스님들이 현재의 간선제도보다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직선제 개선안'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문 스님, 해관 스님, 지홍 스님, 현각 스님, 세영 스님, 선엽 스님, 광전 스님.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과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도 직선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 추진본부 설명이다. 추진본부가 직선제 추진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성파 스님은 "참 좋은 일이다. 특히 선거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거나 화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무여 스님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잘 실현된다. 우리 종단도 민주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에도 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종단 원로·중진 스님 다수가 직선제를 지지하며 직선제 선출 제도 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고 추진본부는 전했다.

이날 추진본부가 공개한 3종의 개선안은 총무원장 선거 시 금품수수를 차단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덕 이상 스님들이 참여해 총무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투표 결과 30% 이상을 득표한 스님을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직선 추첨제', 종법으로 구성한 180명의 '후보 천거회의'가 수행이력, 경륜, 평판 등을 논의해 5인 이상의 후보를 천거하면 중덕 이상의 대중이 투표로 선출하는 '천거 직선제'가 그것이다.

추진본부는 "약 30년 만에 종헌과 선거법을 개정해 종단의 새로운 장을 열고 불교 중흥을 이루고자 한다"며 "9월 10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선안을 검토, 심의해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까지 입법과정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본부는 9월 종회 이후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면담하고 교구본사 주지 및 종회의원 등을 찾아 직선제 추진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종책특보단장에 성화·특보에 가섭 스님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


성화 스님


가섭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보좌하고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과제를 지원할 종책특보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종책특보단장에는 성화 스님이, 종책특별보좌관에는 가섭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임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전 총무원 총무부장)과 종책특별보좌관 가섭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성화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인 시절부터 함께 일해오면서 능숙하고 원만하게 종무를 처리했고, 종단 주요 난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종무에 매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연장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종책특보단장으로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그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종도와 종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임들을 잘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성화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당선인 대변인부터 기획실장, 총무부장으로 3년간 활동했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 새로 임명된 부실장 스님들 및 특보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력 속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국 "0.8평 공간서 묵언·108배하며 성찰"

9월 4일, 진우 스님에 '감사'
진우 스님 "분별 업장 없애야"


사진=공동취재단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9월 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는 청원서를 보낸 바 있다.

진우 스님이 "고생했다"고 인사하자 조 전 대표는 "마음 써주신 덕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수용 생활 속 성찰하며 보낸 시간도 회고했다.

조 전 대표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 주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며 "야외운동 40분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0.8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운동 삼아 수행 삼아 108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있지만 묵언 상태로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읽었다. 사실상 폐문수련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항상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며 "저 역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제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주 만법계와 먼지 한 톨까지 서로 연결돼 있어, 이를 하나하나 시비로 분별하려 들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마음이 지혜를 만들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치하는 이들도 지혜를 쌓으면 국민과 자신 모두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또 "고의 근원을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 말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나온다"며 "평안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여러번 좋은 말씀 해주셨다. 세상 밖에서도 (제가) 뭘 해야 할지 가르침 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동화사 사태, '팔공총림 해제'에서 징계까지

중앙종회, 총림 운영 부실 등 지적
제233회 임시회서 찬성 50표 가결
동화사, 즉각 반발·강경 대응 예고
법적 다툼 시작…종단도 실태 파악
중앙징계위, 9월 1일 '직무정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화사 전경. 사진=동화사 홈페이지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은 중앙종회와 동화사 사이의 갈등이 수개월 누적된 결과다. 사태의 표면적인 출발점은 올해 3월 중앙종회가 내린 '팔공총림 해제' 결의였다.

중앙종회 '팔공총림 해제' 결의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팔공총림 해제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재안 스님(당시 총림실사특위 위원장)은 총림실사특위가 팔공총림 동화사를 실사한 결과 △총림 유지 요건인 강원·율원이 학인 수 미달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교육기관 예산을 전년 대비 61% 삭감해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구 운영 전반에 방장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적의원 81명 중 73명이 투표해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팔공총림 해제의 건'은 가결됐다. 이로써 동화사는 2012년 지정 이후 13년 만에 총림에서 해제됐다.

동화사의 반발과 대책위 구성

동화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교육기관 정기 실사 결과 '지적 사항 없음'으로 적시된 공문을 공개하며 "총림실사특위의 감사 결과는 허위보고"라고 맞섰다. 4월 3일에는 임회를 열어 '팔공총림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총무원법, 총림법, 중앙종회법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동화사 재적승 일부는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를 결성, 4월 8일 "총림 해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내부 갈등도 표출됐다.

중앙종회 '조사특위' 구성

중앙종회는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동화사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6월 10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동화사 특위)'를 구성했다.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은 "동화사에서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과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와 해종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호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표적 감사 논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격론이 이어졌다. 결국 표결 결과 41명의 동의로 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특별감사와 법정 공방

총림 해제 결의로 촉발된 논란은 곧 종단 감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실태 파악을 위해 4월 14일과 21~22일 특별감사를 시도했지만, 동화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24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총무원의 설명이다.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동화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6월 11일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동화사는 즉각 가처분 결과에 항소했다.

징계 절차와 직무정지

결국 종단은 감사 거부와 사회법 소송 제기를 이유로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 23일 1차 회의에서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8월 19일 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참회하고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앙징계위는 9월 1일 3차 회의에서 감사 거부와 행정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화사는 혜정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최종 징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부주지 법민 스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화사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총림 해제 원인으로 지목됐던 '과도한 방장 권한 행사' 등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동화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잘 보고 들어야 통합"

진우 스님, 경청통합수석에
"국민 어려움에 경청"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에게 '경청'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9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이날 대화에서는 '경청'이 강조됐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관세음보살이 경청의 보살이라는 것을 원장스님 덕분에 알게 됐다"면서 "국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늘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자 진우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잘 관(觀)하고 잘 들어 중생을 구하는 분"이라며 "종교를 넘어 그 뜻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청 뒤에는 해결을 염원하는 뜻도 담겼다"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에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복지 분야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하반기도 '대학생 전법' 활성화 박차

영캠프, 9월 16일 장충체육관서
학생 3000여 명에게 수계 예정
9월 23일 탈북민 불교동아리 창립
APEC 맞아 간화선 프로그램 운영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 이하 건학위)는 9월 3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2025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이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영캠프'는 9월 16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며,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사로 약 3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날 예정이다.

'영캠프'는 1부 수계법회와 장학금 수여식,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문화행사에서는 학생 참여 이벤트와 불교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피프티 피프티, 보이넥스트도어 등 아이돌그룹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된다. 9월 23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창립법회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동화사 전 주지 능종 스님,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이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정상들과 외빈 등 관계자들이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은 10월 28일 교내 선센터 등에서 APEC 참가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APEC 2025 KOREA 간화선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도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동국대 석좌교수)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교사 불안엔 '명상' 효과적…학생에도 긍정 영향"

조계종 미래본부, '선면상, 미래 교육 깨우다' 세미나

이규미 아주대 명예교수 발제
교사, '소진'으로 감정 소모 커
안녕감 · 만족도 등에 명상 탁월



교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명상 프로그램이 소진(심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정서고갈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사례들이 소개됐다. 교사의 마음 평안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규미 아주대 명예교수(나우리심리상담연구소장, 사진)는 8월 30일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가 서울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선명상 미래교육을 깨우다-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교사 대상 명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이 명예교수는 먼저 교사는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는 데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사례 7가지를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소진을 호소하는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을 통해 삶의 만족과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스트레스와 소진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예교수는 "명상은 안녕감, 교사·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감소, 자기조절력,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드러났다"며 "특히 소진감과 심리적 고통 등 부정적 정서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학급 분위기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내영 기자



불교계 숙원 풀다…검인정 종교교과서 출간

조계종, 동국대 등 제작 추진
고등학교 교과서 '삶과 종교'
세종시교육청 최종 합격 공고
2026년부터 종립학교서 활용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교육 내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출간돼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와 동국대 출판문화원(원장 박기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불교교육연합회가 개발한 종교교과서 〈삶과 종교〉를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로 최종 합격을 공고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불교계는 과거 두 차례 검인정 교과서를 만들려 했으나 거듭 실패했다. 2015년과 2022년 제작된 교과서는 객관성과 형평성 부족으로 검인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 인정도서 심의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동국대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종교교과서 제작 프로젝트를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동국대가 중심돼 불교교육연합회가 집필에 나섰고,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이 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진행했다.

집필에는 김경래(동국대 불교대학)·문현공(동국대 불교대학)·이학주(동국대부속가람고)·양동효(의정부광동고)·김윤경(동국대부속가람중)·김세연(동국대부속중)·우수형(동국대부속고)·손범준(광동중)·김가연(광동고)·이범욱(광동고)·김덕진(동국대부속고)·권진영(동국대부속영석고) 등 불교교육연합회 소속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종립학교 교법사단 12명이 참여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부도 적극 지원하는 등 집필과 편집까지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종교교과서가 완성됐다. 심의본 접수 이후에는 2차례에 걸친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쳤으며, 세종시교육청의 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공식 교과서의 지위를 얻었다.



불교교육연합회가 발간한 〈삶과 종교〉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지침을 기초로 단위를 구성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전개 방식을 설계했다. 해당 교재는 △제1장 인간과 종교 △제2장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제3장 종교 문화유산 △제4장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인정도서 심의를 합격한 〈삶과 종교〉는 내년부터 불교법인 산하 종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 교과서로 활용된다.

불교교육연합회장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불교교육 종사자들의 합심과 연대로 불교인의 시각에서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학습교재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며 "동국대의 교육이념을 더욱 널리 필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이번 인증 교과서 합격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학생들이 종교와 삶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효 교법사단장도 "현장 교법사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종교 이해와 인성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최응천 석좌교수 임명 기념 특강

9월 3일 국가유산청장 퇴임 기념
"K-헤리티지 가치 세계 알려야"



초대 국가유산청장을 지낸 최응천 전 청장의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임용을 기념하는 특강이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3일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최응천 석좌교수 임명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최 교수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K-헤리티지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주제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편한 의미부터 우수한 한국 전통문화유산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까지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최 교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굿즈 브랜드 '뮷즈'가 내놓았던 '까치호랑이 배지'에 주목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즈'의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를 닮은 '까치호랑이 배지'는 한해 매출이 70만원 정도였지만 영화의 흥행 이후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뮷즈'가 출시한 '취객 선비 변색잔 3종 세트'도 소개했다. 차가운 술을 따르면 잔에 그려진 선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해당 굿즈는 출시 즉시 품절되는 인기 상품이다.

최 석좌교수는 "'취객 선비' 굿즈는 청장 재직 시절 구해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만난 인사들도 구입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굿즈 판매량 늘고 박물관 입장객이 증가한 것을 '숟가락 얹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되새기고 문화유산의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발굴·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과제이자 화두"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10돌 한국명상지도자協, 전문 지도사 배출학교 연다

명상지도자학교, 9월 20일 개강
전문 트레이너 · 디렉터 자격반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한 명상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적경 스님)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명상지도자학교'를 개설하고 체계적인 명상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한국명상지도자학교는 '명상전문지도사 트레이너 자격반'과 '명상전문지도사 디렉터 자격반'으로 운영된다.

트레이너 자격반은 명상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명상 강사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열린다. 9월 20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매월 첫째 주·셋째 주 토요일 10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2급, 1급,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라면 수강 가능하다.

△명법 스님의 '명상지도자의 윤리 에티켓'(온라인) △김재성 교수의 PPT와 AI를 강의에 활용하는 방법(대면) △박희승 총장의 '명상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보도자료 작성 및 SNS 활용법'(온라인) △ 일중 스님의 '명상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대면) 등으로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디렉터 자격반'은 명상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도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9월 2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매월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오후 2~4시 총 10강에 걸쳐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와 온라인으로 열린다.

△지운 스님의 '차명상의 이론과 실습'(온라인) △박희승 총장의 '선명상 이론 및 지도법 실습'(온라인) △혜주 스님의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대면) 등의 수업이며 2026년 1월 23~25일 열릴 2박 3일 명상지도자 합숙 캠프에 필히 참여해야 한다. 명상지도사 2급, 1급, 트레이너, 디렉터 자격증 소지자면 참가할 수 있으며 타 명상단체 지도사도 청강 가능하다.

명상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명상지도자 양성을 위한 명상아카데미 자격 과정 2급, 1급' 가을학기는 10월 22일 개강한다.

10월 22일~2026년 1월 10일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12주간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 최고의 명상지도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진행하며 검증된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명상전문지도사 2급,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02-953-5307

임은호 기자

진흥원, 11기 대원청년불자상 56명 선정

동아리상엔 65개 단체
8월 28일 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8월 2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제11기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공모 수상자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121건의 선정 학생 및 단체에 2억 97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제11기 청년불자상·동아리상은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청년불자상 56명(대학생 47명·대학원생 9명), 동아리상 65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초등학교 불교동아리에 각 50만원, 중·고등학교 불교동아리에 각 150만원, 대학교·대학원 불교동아리에 각 150만원이 전달됐다. 또 선정된 모든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는 별도로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추가로 지원했다.

청년불교 활성화와 인재 양성 불사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공모 사업은 제1기~제11기(2020년~2025년 하반기)까지 1337건에 대해 총 30억 575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올해 공모사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신행·수행에 진력하는 학생 및 동아리에 관심을 갖고 심사해 청년불교 포교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은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생명나눔, 동국대 일원서 제16회 걷기명상

9월 13일, 10시 만해광장 출발
4km 걸으며 환경보호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및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살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마다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하고 있다.

걷기코스는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를 걷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며, 환경보호를 위해 플로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해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도 펼쳐진다.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블루투스 헤드폰,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추천도 진행된다. 02-720-7720

임은호 기자

"명상 문화, 종교 넘어 현대적 실천으로"

조계종, 9월 3일 미국불교 세미나
명상 재해석 · 선명상 세계화 제언



미국불교 현황을 통해 현대인을 위한 명상을 재해석하고 선명상 세계화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는 9월 3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에서 미국불교를 주제로 '2025년 해외불교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불교 명상의 현대적 전환과 세속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불교 명상이 세속화, 과학화, 의료화, 산업화되는 과정을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종교적 수행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와 상업적 응용의 대상이 됐는지를 역사적·이론적 맥락 속에서 분석했다.

존 카밧진, 틱낫한, 달라이라마 등 세계적인 불교 인물들 역시 비종교적 명상 프레임을 넘어 명상의 뿌리와 불교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문진건 교수는 "명상의 세속화는 단순히 종교적 요소가 제거된 표면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불교 내부의 근대화 시도와 서구 심리학·과학의 이론적 해석이 맞물리며 구조화된 복합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 과학, 산업, 영성의 경계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다"면서 "세속적 과정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이 다양한 사회적 장 안에서 의미를 전환하며 살아남는 복합적 문화현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상은 오로지 종교적이거나 과학적인 것, 혹은 산업적 상품만이 아니라 모든 정체성을 교차하며 구성되는 현대적 실천의 장"이라며 "복합성과 유연성은 명상이 미국 종교문화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성청환 동국대 연구교수는 '미국불교와 미국에서의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가 미국 내에서 행해야 하는 지점을 두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방향으로 '온라인'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한국불교가 미국인들에게 종교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전파할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의 장점을 활용,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영어 소통이다. 성 교수는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영어 소설 플랫폼으로 제작해 소통을 시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산사의 아름다움, 예불의 장엄함 등의 비언어적 소통도 결국에는 언어적 소통으로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용석 교수는 '선명상의 세계화에 대한 소고'에서 서구 수행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한국의 전통적인 선불교와 현대의 명상 전통이 융합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선명상과 예술의 접목, 집단지성의 활용 등을 제언했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재,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의 선명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은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해외불교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의 자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자기업, 조계종에 마스크 7만7000장

㈜유바이오메드 9월 2일 후원
산하 복지시설 10개소에 배포



불자기업 ㈜유바이오메드(대표 엄년식)가 불교계 사회복시설에 전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7만7000장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9월 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마스크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마스크를 후원한 ㈜유바이오메드는 의료기기와 마스크, 화장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후원한 마스크 7만 7000장은 지난 5월부터 영통종합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전국 1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됐다.

전달식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도륜 스님은 자비를 강조하며 "마스크 7만 7000장은 자비심이 형상화 된 소중한 공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복지시설과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에 두루 전달돼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편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년식 ㈜유바이오메드 대표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불자로서 불교 단체와 인연을 맺게 돼 더욱 뜻깊다"면서 "작은 나눔이지만 앞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생활선 세계화 가능성을 엿보다

특별기고
세계종교역사학회 참관기


세계종교역사학회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폴란드 야기엘로니안 대학에서 제2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00여 개국, 3000여 명의 종교학자가 참여했으며 '한국불교의 이슈들' 세션이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폴란드 최초 대학인 야기엘로니안 대학에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들었다.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3회 세계종교역사학회(IAHR World Congress 2025)'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연구자와 수행자들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종교 역사와 철학, 수행과 신앙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세계종교역사학회는 1900년 창립 이후 120년 전통을 이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학 학술대회다.

올해 학회의 대주제는 '유럽을 넘어: 연결된 세계 속의 종교 연구(Out of Europe: Studying Religion(s) in Interconnected Worlds)'였다. 종교학이 유럽에서 탄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과정을 돌아보며, 서구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불교학계 역시 중요한 목소리를 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한국 연구자들은 생활선 사상과 연등회 의례의 수행적 의미, 서구 사회에서 한국 불교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성을 세계 학계와 폭넓게 공유했다.

한국불교 세션 '생활선' 관심多

8월 25일 오전 파데레비아눔(Paderevianum) 9 103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의 이슈들(Issues in Korean Buddhism)' 세션에서는 총 네 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이를 경청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표는 필자가 맡았다. 필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현대 불교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현대화와 세계화 과정을 분석했다.

"대행 선사의 사상은 한국 불교를 현대인들의 삶과 연결시켜 일상 수행을 세계와 소통하는 길로 열어줬다"고 주장한 필자는 대행 선사의 생활선 수행법이 일상 언어로 구성돼 문화와 지역을 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 수행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혜유 스님(한마음아카데미, 독일)은 '서구사회에서 한국불교 전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1980년대 이후 한국불교가 서구에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한마음선원의 국제포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 설립된 한마음선원 해외 지원들은 현지인들과 수행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며 초기부터 영상·신문·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법문은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내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1986년 시작된 법문 영상 제작, 1996년 시작된 인터넷 방송, 현대불교신문 창간 및 온라인 포털 운영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한마음국제문화원의 역할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어·독일어·베트남어 등 10여 개 언어로 번역·출판하며 서구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인식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혜유 스님은 "번역과 미디어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선원의 수행과 사상이 세계 속 생활 불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는 '한마음 과학자로서의 학자: 대행 선사의 영성, 의식의 전환, 그리고 상호연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겸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바탕으로, 학자가 단순한 지식 생산자가 아니라 정신적 의식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책임을 수행함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인간이 본래 지닌 근본 마음(한마음)을 "무한한 지혜와 자비, 가능성을 품은 근원"으로 정의하며, 이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수행과 학문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발표에서 '한마음 과학자(Hanmaum Scientist)'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학자는 지성과 직관, 물질과 정신을 통합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깨어 있는 연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혜유 스님이 한마음선원의 국제 미디어 포교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박진영 교수가 '탈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종교연구' 논단서 발언하고 있다.

8월 24~30일 야기엘로니안大서
2025세계종교역사학회 학술대회
100여 개국 3000명 학자 운집
'한국불교 이슈들' 세션 신설돼
대행 선사, 영산재 등 주제발표
박진영 교수 등 한국 학자 참여


세계종교역사학회 제23회 대회에 참여한 한국 학자들.

또한 연구자는 학자가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과 편견을 인정하고, 내려놓음과 맡김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황 겸임교수는 강조했다.

오디토리엄 맥시멈 미디엄홀에서 열린 '종교, 축제, 공동체: 새로운 사회 정체성의 형성 Ⅱ'에서도 한마음선원 사례 연구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박진영(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씨는 '수행으로서의 축제: 현대 한국불교 사찰의 연등회 준비 사례'를 통해 한국불교 대표 도심 사찰인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 차원을 넘어 수행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불자들에게 있어 연등회는 일반적인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연등을 제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전 과정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강조한 그는 한마음선원 불자들은 연등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대상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불성의 작용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전통 의례와 축제가 현대적인 선 수행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같은 세션의 김종명 금강대 교수는 '한국 영산재 불교 의식: 그 사상적 기반과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영산재는 〈법화경〉의 영취산 설법 장면을 재현하는 한국 고유의 불교 의식으로, 음악·무용·회화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장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 의례다.

김 교수는 "영산재가 단순한 전통 행사에 머물지 않고 업보·인과·윤회·정토·선(禪)등의 사상을 담아 참가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적 길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씨(인도 델리대학교)는 '한국의 여성 관세음보살 신앙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관세음보살신앙은 여성적이고 친근한 특성을 지니며, 특히 바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발전해 왔다"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여성적 관세음보살신앙은 중국과 일본의 남성 중심 불교문화와 대비되며, 한국불교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韓석학이 종교학 논단도 눈길

8월 26일에는 세계적 석학인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탈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 라운드 테이블 논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논단에서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학의 구조적 한계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박 교수는 서양의 식민주의와 국가주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의 종교학자와 철학자들이 학문적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marginalized)된 현실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서구에서 형성된 종교학의 개념과 분류 체계는 동아시아 종교와 철학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며 "아시아 종교와 철학이 서구적 카테고리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서구적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수행과 신앙을 재해석할 필요성과 세계 종교학 담론에서 다양성을 반영할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필자에게 2025 세계종교역사학회 학술대회 참가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성, 그리고 수행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 속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박훈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아잔타석굴 9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산치대탑등 순례 일정입니다.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산치대탑-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9만원 (보시금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산사와 트레킹의 만남 '범어사 힐링 템플레킹'

8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 및 경내 일원

사찰음식 직접 만들어 먹고
연등에 가족 소원지 달기도
숲에서 소리 채집으로 교감
9~11월 추계 투어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선보인 '힐링 템플레킹(Temple+Trekking)'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가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사찰음식 만들기, 연등 제작, 숲길 걷기를 결합한 하루 코스로 운영된 이번 체험은 모집 시작 3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8월 30일, 참가자들은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에서 사찰음식을 만드는 체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표고버섯과 연근이 바삭하게 튀겨져 나오고, 정성껏 말아 올린 유부채소쌈이 접시에 담기자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과 나눈다"는 기대감에 웃음이 번졌다.

차림상에는 참송이국, 쌈밥, 표고버섯연근탕수이, 도토리묵, 마구이, 유부채소쌈 등 다채로운 음식이 정갈히 차려졌다. 식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관게'를 합송하며 음식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가치를 새겼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는 이들도 눈에 띄였다.

식사 후에는 과일찹쌀떡과 매실차가 후식으로 제공됐다. 아이들은 달콤한 맛에 즐거워했고, 한 참가자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니 색다르고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점심 공양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짧은 명상에 참여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히 한 후, 연등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완성된 연등에는 가족의 소원이 적힌 종이가 함께 매달렸다.

숲길 트레킹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각자 손에 지향성 마이크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풀숲을 스치는 곤충 소리까지 모두가 녹음 대상이 됐다. 한 참가자는 마이크를 나무 위로 들어 올려 숲의 숨결을 채집했고, 다른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 난간에 기대어 소리를 찾아냈다. 이어 폰을 낀 채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자연과 교감하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트레킹은 금정산 숲길 둘레길에서 진행됐다. 전문 스토리텔러가 범어사의 역사와 전설을 들려주었고, 일정 구간은 말 없이 걷는 명상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선보인 '힐링 템플레킹(Temple+Trekkig)'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참가자가 나무 위로 마이크를 들어 올려 새소리를 담고 있는 모습.

체험에 참여한 우진경(58) 씨는 "예전에는 불교 공부 위주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힐링 중심이라 새로웠다"며 "사찰음식도 직접 만들고 연등도 처음 만들어 보니 과정 자체가 수행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3만원. 사찰음식과 전통 공예 체험, 전문 해설, 금정산 트레킹까지 포함된 일정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금액이다. 이는 범어사와 부산시의 지원 덕분으로, 불교문화 체험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족 단위 참가자가 다수 몰린 것도 이러한 접근성과 공공 지원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부산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지원하는 범어사 힐링 템플레킹의 하계 투어는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추계 투어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이어진다. 추계 투어에서는 참가자가 난이도별 트레킹 코스를 선택해 산행을 즐기고, 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해 숲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는 체험이 마련된다. 활동을 마친 뒤에는 사찰음식 정찬과 기념 굿즈가 제공돼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템플레킹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라며 "계절마다 다른 금정산의 풍광과 범어사의 전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련사, 일본군 '위안부' 84위 영가 천도재 봉행

8월 30일, 혜원상생콘서트도 생명평화제전본부 공동 주최

'선망 일본군 위안부 각렬 영가(先亡 日本軍 慰安婦 各烈 靈駕).'

불단 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4위 영가의 이름이 새겨졌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가 8월 30일 봉행한 일본군 '위안부' 천도재에서다.〈사진〉 목탁 소리와 염불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억울한 넋을 함께 기렸다.

천도재가 끝난 뒤 황련사 마당은 혜원상생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로 가득 찼다. 조대일 국악인과 남산놀이마당이 선보인 '열림북'은 힘찬 장단으로 공연의 문을 열었고, 이어진 무대들은 추모와 평화의 메시지를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풀어냈다.

김미자의 '청수한동이'와 이노연의 '회심바라승무'는 불교적 장엄미 속에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낭독극 '을밀대 지붕 위에 강주룡'에서는 여성 노동운동가의 투쟁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돼 관객을 몰입시켰다.

안혜경 음악가와 방영식 목사가 함께한 '노래 한마당'은 평화와 연대를 노래했고, 독립군과 박차정 장군을 기리는 무대가 이어져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마지막 순서로 창작탈춤패 지기금지의 '대나무 신칼 못동춤'이 장단을 타고 펼쳐지며 공연은 절정을 맞았다.



정산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15세도 안 된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지만,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식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임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불교의 자비로 그 고통을 보듬고 치유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추모재와 혜원상생콘서트는 황련사와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메리츠화재 녹색협약

9월 1일, 기업 첫 동참 환경보살의 길 실천 다짐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9월 1일 메리츠화재동부산본부(본부장 이병철)와 '녹색기업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불교계와 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길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불교환경연대의 녹색기업 운동에 동참한 첫 사례다.〈사진〉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비닐봉지를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본부장은 "작은 힘이지만 메리츠화재동부산본부에서 먼저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환경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플라스틱 절감 △빈그릇 운동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 △정기적인 환경교육·캠페인 등이 담겼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숭림사·종상 대종사 문도회, 장학금 전달

9월 2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부산 숭림사(주지 대휴 스님)와 불국사 종상 대종사 문도회(대표 성행 스님)가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불교 청년 인재 양성에 뜻을 모았다.

숭림사 회주 진철 스님은 9월 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불교동아리 재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총 2억원을 기탁한 진철 스님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잘 활용해 학업과 수행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상 대종사 문도회도 5000만원을 기탁하고, 불교동아리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은 "종상 대종사의 가르침은 베푸는 삶에 있다. 그 뜻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님들의 삼보정재가 학생에게 삶의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불교TV, 신작 찬불가 발표회

신작 찬불가 30곡 중 8곡 공개



BTN불교TV(사장 구본일)가 개국 30주년을 기념하는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8월 30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개최했다.〈사진〉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BTN불교TV남성중창단(단장 박준홍)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연꽃, 나를 피우다'라는 주제로 신작 찬불가 30곡 중 8곡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박준홍 단장은 "신작 찬불가를 선보일 전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곡을 각 지역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과 함께 불러 보는 시간을 가지며 찬불가를 통한 포교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지행 스님 "원랑선사탑비 '환지본처'하겠다"

제천사암연합회장 취임식서
회장 취임 일성으로 밝혀
제천산업엑스포 성공 기원
출재가 집행부 임원 임명도

유재상 충청지사장



8월 30일 제23대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한 지행 스님이 "원랑선사탑비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합회기를 받은 지행 스님.

제23대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비봉사 주지)이 취임 일성으로 "원랑선사탑비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천불교사암연합회는 8월 30일 제천 명성유유웨딩컨벤션에서 지행 스님의 회장 취임법회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해봉 스님(영천사 원로), 구산 스님(태고종 호법원장·도선정사)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랑선사탑비는 반드시 본래의 자리인 제천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환지본처를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물로 지정된 원랑선사탑비는 제천 한수면 동창리 월광사터에 전해오던 탑비로, 1922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로비에 전시되고 있다. 원랑 선사는 문성왕 18년(856) 당나라에 유학해 11년간 정진하고 귀국한 뒤 월광사에 머물렀다. 탑비는 원랑 선사 입적 후 진성여왕 4년(890)에 세워졌다.

지행 스님은 "탑비의 귀향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반환을 넘어 제천 불자와 시민이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며, 후손들에게 불교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탑비가 제천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한결같은 정성과 서원을 이어가겠다"며 "제천이 중원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엑스포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큰 공덕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23대 회장단의 출범은 제천 불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연합회가 안정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승 조화의 가치 아래 한층 더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 집행부는 총괄운영위원장 의림정사 혜명 스님, 수석부회장 진철 스님, 부회장 송학사 보성 스님, 총무 자은사 지담 스님, 사회국장 약수사 범수 스님, 홍보국장 도성사 도성 스님, 사무총장 오명권, 사무국장 오윤화, 재무국장 신광보, 어머니법회 관음행 사공종순 회장과 조경선·조혜원 부회장, 문사국장 김재덕을 위촉·임명했다.

이어 연합회 발전에 헌신한 자인심전 법회장, 보리수합창단 강유정 지휘자, 반주자 장지혜 보살에게 특별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도사, 해군 가족과 사찰음식·명상 체험

8월 30일, 2함대 장병 등 50여 명
주지 적문 스님, 연근지짐 등 시연


명상체험행사에서 죽비를 치고 있는 적문 스님.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8월 30일, 불교 전통문화와 명상의 지혜가 해군 가족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와 함께 '해군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및 명상 체험' 행사를 열었다. 수도사는 서해안을 지키는 2함대 해군 장병과 가족,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을 사찰로 초청해 불교 전통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도사 경내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사찰음식 명장이자 연구소장인 주지 적문 스님이 직접 '연근지짐'과 '옥수수 장떡'을 시연하며 사찰음식의 철학과 의미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지도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절제와 조화 속에 깃든 사찰음식의 정신을 느꼈다. 이어 함께 한 점심 공양에서는 수도사가 준비한 새싹비빔밥과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적 기쁨을 나눴다.

식사 후에는 원효 대사 깨달음체험관으로 이동해 명상을 실참했다. 장병 가족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적 평온을 경험했다.

적문 스님은 "서해를 지키는 군인 가족과 함께 전통 사찰음식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수도사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 불교가 함께하는 치유와 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군 제2함대 김상욱 중령은 "군 장병과 가족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이어가겠다"며 민·군 상생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허성재 제2함대 사령관과 한광희 참모장을 비롯해 해군 가족과 문형철 원효마을 이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지리산의 선율, 천은사서 재즈로 피어나다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성료
8월 29~30일 1000여 명 동참
대진 스님 "함께 숨 쉬는 공간"

여름의 끝나는 계절,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과 음악, 사람을 아우르는 특별한 재즈의 향연이 펼쳐졌다.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내 일주문 앞 광장에서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를 주제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등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진 스님은 "아름다운 구례와 지리산, 섬진강의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구례는 많은 이들이 더불어 숨 쉬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즈 페스티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어가며 구례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리산과 함께하는 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 먼 곳에서 찾아 주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9일에는 현용선 밴드와 반다지 오르타가 무대를 열었고, 30일에는 시인의 수영장(Piscina del la Poeta), 빅작(Big JEEQ), 마리아 킴 퀄텟(Maria Kim Quartet), 이규재 재즈 컴필레이션(Gyujae Lee Jazz Compilation) 등이 재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현용선 밴드는 싱어송라이터 감성의 사운드와 자유로운 즉흥성을 보여줬으며, 반다지 오르타는 '채소밭 밴드'라는 별칭처럼 신선한 브라질리언 재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구례 천은사는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내에서 '2025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인의 수영장은 시와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무대로 감미로움을 더했고, 빅직(Big JEEQ)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융합해 강렬한 에너지를 전했다.

한국 재즈 보컬이자 피아노 듀오 아티스트인 마리아 킴은 대중성과 완성도를 겸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규재 재즈 컴필레이션은 라틴 퍼커션과 스윙, 브라질리언, 힙합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 관계자는 영화 '굿 윌 헌팅'의 명대사이기도 한 행사 주제에 대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그런 이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해남사 무료 경로식당, 성남동 이전

8월 30일, 개소식에 300명 참석
30년 운영 경로식당 재개발 이전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8월 30일 중구 성남동에서 무료 경로식당 '수자타의 집-북정경로식당'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해남사는 지난 30여 년간 북정동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됐다.

개원식에는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 열린선원 주지 창윤 스님, 통도사 사회국장 정원 스님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삼귀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경로잔치 공연, 도시락 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혜원 스님은 기념사에서 "수자타가 부처님께 올린 우유죽 한 그릇이 깨달음의 인연이 되었듯 이곳의 공양도 자비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숨 쉬는 도량, 수행과 나눔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정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후원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에서 "이웃을 돕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오늘의 개소식을 축하하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도 "혜원 스님의 원력으로 '수자타의 집'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며 "고령화가 심한 중구 어르신들을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전한 성남동 경로식당은 넓은 식사 공간과 대기실을 갖춰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양할 수 있게 됐다. 해남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공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취임

9월 2일 취임법회…"화합으로 미래불교 발전"



태고종 제18대 광주전남종무원장 지공 스님〈사진〉이 9월 2일 취임했다. 스님은 취임식에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미래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9월 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지허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과 고문 도성 스님, 부회장 중현 스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지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 법단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한다면 종단과 교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교구가 이웃과 화합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자비의 등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지공 스님은 교구 부원장으로 지역 행정을 두루 살피고, 중앙종회 재경분과위원장으로 종단 정책과 재정을 이끌어 왔다"며 "지공 스님을 중심으로 교구 사찰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중앙과 긴밀히 소통해 종단의 모범 교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공 스님은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성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하고 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광양 도선사 주지, 광주전남종무원 재무국장, 교구 종회의원, 중앙종회의원(15·16대), 광주전남종무원 부원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암사 종회의원과 광주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황룡사, 국악엑스포 성공 기원 음악회

8월 31일, 제2회 산사음악회
"불교문화와 국악 마음 울림"



영동 황룡사(주지 종림 스님)가 오는 9월 12일 개막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악 선율로 물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8월 31일 황룡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와 경내 일원에서 열린 제2회 황룡사 산사음악회에는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 강성규 영동군 부군수, 정영옥 자비실천재가노인복지센터장 등 불자와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려졌다.

종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황룡사 산사음악회가 불교 전통문화와 국악의 만남을 통해 군민들의 마음에 울림과 평안을 전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오픈 행사로서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철 군수는 강성규 부군수가 대독한 인사를 통해 "영동은 국악의 고장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며 "황룡사 산사음악회가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악엑스포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회 1부에서는 '정정미 명창의 국악애숲'의 길놀이, 판소리, 아쟁 산조춤이 펼쳐졌고 영동유치원, 상촌초 및 인근 어린이들로 구성된 국악애숲 어린이소리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나라' 등을 합창했다. 2부에서는 이동환의 통기타 연주, 손창희의 색소폰, 박인환의 트로트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분당 대광사, 불곡산 가을빛 예술제 연다

9월 20일, 김준수 김연우 등 무대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분당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는 9월 20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수와 합창단 등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음악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먼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가수 김준수와 감성 발라드의 대표주자 김연우, 트로트 가수 우연이가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대광사 합창단의 장엄한 합창과 다문화팀의 베트남 전통춤 공연이 펼쳐진다.

주지 경혜 스님은 "올해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지향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 구성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며 "깊어가는 가을밤, 음악과 예술으로 따뜻한 빛을 전하는 예술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715-3000

노덕현 기자

‘사자의 서’, 현대무용으로 만나다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공연
9월 17~20일 해오름극장서
사후 49일 여정, 춤으로 표현
초연 당시 매진…완성도 높여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공연 한 장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를 현대무용으로 해석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은 ‘사자(死者)의 서(書)’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사자의 서’는 2024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지적이고 감각적인 춤의 경전’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매진을 기록했던 작품이다. 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재공연 요청이 있어 왔고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의 첫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사자의 서’는 8세기 티베트 불교 성인 파드마삼바바가 쓴 수행지침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아 망자가 죽음 이후 49일간 겪는 내세의 여정을 강렬한 춤과 에너지로 그려 낸 작품이다. 안무는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삶과 죽음,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 미학으로 풀어낸다.

작품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 1장 ‘의식의 바다’는 죽음을 애도하는 제의로 시작, 저승사자가 등장해 망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한다. 죽음의 강을 건너며 춤추는 망자의 독무와 죽음을 애도하는 살아 있는 자들의 군무로 강렬한 대비를 보여 준다.

2장은 ‘상념의 바다’로, 망자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소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삶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회한과 체념 등 감정의 굴곡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마지막 3장 ‘고요의 바다’에서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반복 움직임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가 연결된다는 성찰과 위로를 전한다.

이번 재공연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흐름을 보다 압축적으로 재구성하고, 캐스팅에도 변화를 줬다. 초연 당시 2인의 남성 무용수가 맡았던 망자 역은 이번에 성별 구분 없이 5인의 국립무용단 주역 무용수가 번갈아 맡아, 인물의 다층적 해석과 신체 표현의 다양성을 더한다. 초연 멤버 조용진을 비롯해 관록의 장현수·김미애,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박소영·이태웅이 출연해 각기 다른 색채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자의 서〉 음악은 김재덕 씨와 황진아 씨가 맡았다. 직접 춤을 추며 음악을 만드는 안무가인 김재덕 씨가 1·2장을,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 씨가 3장의 음악을 맡았다. 변형된 국악기 주법과 사운드, 앰비언트 사운드를 덧입히는 등의 시도로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여기에 더해 이태섭 무대디자이너와 장석영 조명디자이너, 황정남 영상디자이너, 노현주 의상디자이너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죽음 이후의 여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49재,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불교는 지금

파키스탄 內 불교 공동체 사회적 차별로 곤경 처해

인도·미얀마 외신 등 집중 보도
소수 종교 신자 대한 차별 심화
사회·경제적 배제…국가는 묵인
수천 불교도, 이슬람교로 위장

한때 간다라 문화의 요람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이제 불교는 의도적인 방치와 문화적 차별에 의한 쇠퇴의 증거로 꼽히고 있다. 8월 25일 인도의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와 미얀마의 ‘밋지마 뉴스’의 외신은 현재 파키스탄의 불교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받으며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밋지마 뉴스는 선리(Sun Lee)라는 필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현지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2025년 현재, 파키스탄 불교도들의 곤경과 불교문화유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파키스탄 사회에서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며 소외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 준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미약하게 남아 있는 파키스탄 불교도들에겐 현재 그들을 위한 종교적 공간이나 존중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는 “파키스탄 북부를 중심으로 한 간다라 문명은 한때 탁실라, 스와트, 페샤와르 일대에 불교승원들과 불탑 조성이 번성했던 중심지였다”면서 “그러나 황금기의 유산들은 이민족의 정복, 종교적 변혁,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와 방치로 해체되고 있다. 오늘날 이 유적들은 살아 있는 신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고고학적 유물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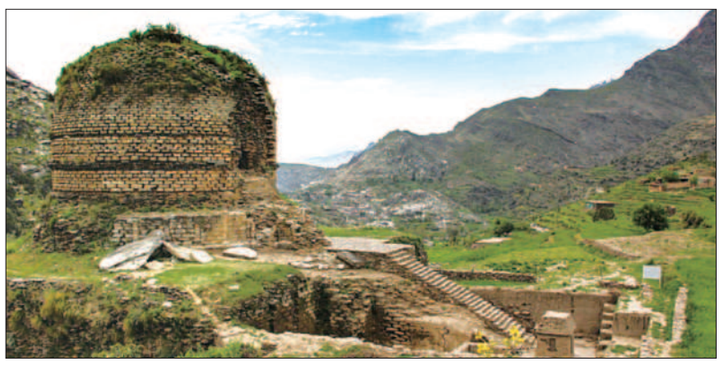
현재 파키스탄의 불교도는 수천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슬람교도로 위장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 외에도 파키스탄 내에선 힌두교도, 기독교도, 시크교 등 소수 종교인들이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선리의 보고서는 “인도 국경지역에 다수 포진한 불교도 가족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을 숨기고 있다. 불교도임을 공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배제의 위험에 처하며, 제한된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불교도가 다수 거주했던 잠무-카슈미르 지역과 구 라다크 지역의 경우 사찰들이 남아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예불과 참배는 물론 보수공사 등도 금지되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는 파키스탄 불교도들과 종교적 성지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문화유산 보존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불관용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선리의 보고서는 현재 현지 불교도들의 곤경은 파키스탄 내 다른 소외 계층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불교 정체성의 약화는 다원주의를 훼손하고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민족 정체성을 고착시켜 타 종교와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의 한 줄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스와트계곡에 있는 일묵다라 스투파. 파키스탄은 고대 간다라불교의 중심지였다. 사진=위키피디아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⑨ 무피염

권태와 싫증에서 벗어나기

無 疲 厭

마오쩌둥은 임종 직전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홍매의 〈용재수필〉을 읽을 만큼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의 독서법은 ‘삼복사온(三復四溫)’, 곧 세 번 읽고 네 번 되새기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연설이나 대화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독서에 몰두한 그도 책 읽기에 싫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불후의 명곡도 반복해서 들으면 피로해지듯, 인간은 되풀이되는 일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잃기 마련이다.

권태와 싫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깊은 가치와 의미가 담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쉽다. 그래서 경전은 서원을 실천할 때 지치거나 싫증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화엄경〉 ‘이세간품’은 십종 무피염(無疲厭)을 말한다.

“불자야, 보살은 열 가지 싫증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일체제불을 공양하는 일, 내지 선지식을 친근하는 일, 일체법을 구하는 일, 정법을 듣는 일, 정법을 펼치는 일,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일, 불법을 관찰 사유하는 일, 중생을 깨달음에 들게 하는 일, 낱낱의 세계에서 불가설 불가설의 겁이 지나도록 보살행을 행하는 일에 싫증을 내지 않는다.”

또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은 10대 서원을 맺으며 다짐한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경도 다하겠지만, 중생계와 중생의 업과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예경도 쉬지 않나니, 이런 나의 원이 마음마음에 계속 이어져 쉼이 없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삼업이 피로해하거나 싫증을 내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 종교 수행조차 처음에는 의미와 열정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태를 느끼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중단한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난다.

카프카의 〈변신〉,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권태를 인간의 병폐로 다루었다. 반면 니체는 권태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끄는 창조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좋은 일을 하면 과정과 결과가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구니가 기승을 부린다는 도고마성(道高魔盛)의 말처럼, 권태와 싫증은 가장 강력한 마구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무심하고 즐겁게 과정을 즐길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무피염의 보살이 될 수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로힝야 난민 문제, 연기적 사유로 접근을”

문유정 강사,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2017년 발생 ‘로힝야족 사태’
중국 등 지정학적 이해 작용
‘국제법적 정의’ 한계 보여줘

19세기부터 이어진 복합 문제
미디어 내 혐오가 사태 한 몫
‘가해자-피해자’ 이분법 아닌
不二 연기관으로 문제 접근을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인 로힝야 난민들. 로힝야 난민 문제는 역사 · 경제 · 정치 · 외교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국경없는의사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며 시작된 ‘로힝야족 사태’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국제 문제다.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로힝야족 사태’를 단순히 미얀마 내 민족·종교 갈등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들의 문제를 ‘가해자-피해자’라는 단순 구조가 아닌 연기적 사유로 접근해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사진>는 8월 29일 열린 불교평론·아시아종교평화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로힝야 난민과 전쟁 고통의 불교적 성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서울 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태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 강사는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국제법적 정의와 국제 인권 보호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서 미얀마는 핵심경로에 있는 국가이고, 미얀마 군부와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연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거나 제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강사는 “로힝야 사태는 말해질 수 없는 구조적 고통이자, 국제법적 한계와 윤리적 선택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폐·왜곡되는 고통”이라며 “이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 정의’라는 담론이 실제 기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로힝야 사태는 ‘가해자-피해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그렇기에 문 강사는 로힝야 사태를 “연기적 사유를 통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식민지 이주 정책에서 시작된 로힝야족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버마 민족주의 강화·민족국가 탄생·이슬람에 대한 편견 등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내재됐다. 여기에 페이스북과 같은 SNS,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는 사태를 촉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국가 간 역학·이해관계 역시 로힝야족 난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로힝야족의 인권은 명백히 보호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문 강사는 “연기적 사유는 고통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기보다 현상의 직시를 가로막는 무명(無明)과 삼독심을 통찰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이(不二)의 연기관은 로힝야 난민 문제와 기후위기, 전쟁과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대안적 세계관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유는 학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고통의 현실을 함께 짊어지는 실천적 수행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의 ‘전쟁의 이유, 종교의 자리, 명멸하는 평화’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장의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태평양전쟁과 일본불교’ △홍미정 단국대 교수의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평화’ △이병성 연세대 강사의 ‘가톨릭과 개신교 30년 전쟁이 남긴 것’ 등이 발표됐다.

근대 불모 금호 약효 스님 신중도 ‘환지본처’

조계종 · 마곡사 獨 경매 낙찰
8월 21일 마곡사 성보博 이운

근대 대표 불모인 금호당 약효 스님(?~1928)이 조성한 금산 보석사 신중도가 환지본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국외로 유출되어 독일 경매에 출품된 충남 금산 보석사 ‘신중도’를 환수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외 한국문화유산 경매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신중도’ 1점을 발견했다. 화기(畵記) 앞부분의 제작 연호와 봉안 사찰명이 일부 훼손됐으나 보석사로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바로 보석사와 본사인 마곡사에 해당 내용을 전했다. 이후 마곡사는 적극적으로 환수 의사를 종단에 밝혔으며, 이에 종단과 마곡사는 협의를 거쳐 경매에 참여, 지난 6월 26일 낙찰받았다.

‘충남 금산 보석사 신중도’는 통관 및 이송을 위한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21일 국내로 반입돼 마곡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됐다.

환지본처한 신중도는 1886년 금호 약효 스님이 그린 것으로, 특히 약효 스님이 화업을 시작하던 시기의 불화로 스님의 초기 화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약효 스님은 1879년 봉녕사 ‘석가설법도’를 시작으로 약 100여 점이 넘는 불화를 남긴 근대의 대표적인 불모다.

약효 스님은 입적까지 마곡사에 주석하며 많은 불화를 남겼다. 마곡사는 약효 스님을 기리며 매년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스님의 뜻을 이어 현재 금어원도 건립 중이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곡사와 인연이 깊은 성보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앞으로도 종단은 관계기관,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성보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독일 경매에서 낙찰 받아 환지본처한 금산 보석사 신중도. 근대 대표 불모인 금호당 약효 스님이 조성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3일 지정 예고
“조선 佛殿 양식 변천 확인”


보물로 지정 예고된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선 중기 건립된 것으로 추청되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장(청장 허민)은 “조선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특히 조선 전기에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뤄졌던 안동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망와에 기록된 글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인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지만,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했다. 이후로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보기 드문 역사성을 지닌다.

광흥사 응진전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정면의 공포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로 화려하게 조성했으며, 옆면과 뒷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고 꽃 문양이 그려진 화반으로 장식하여 정면을 강조했다.

특히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여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잘 보여 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응진전에 봉안돼 있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며, 총 42구로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배치가 특이하여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안동 광흥사 응진전’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마곡사, ‘디지털 사지’ 제작 추진

8월 27일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完
인물 등 4개 테마로 구성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8월 27일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사진 왼쪽)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태화산 마곡사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사지(寺誌)’ 제작이 추진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8월 27일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사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K-부디즘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최연식 교수, 이하 사업단)에서 제작하는 불교문화콘텐츠다. 사업단은 각 사찰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기록유산을 엮어 책자 형태로 간행하던 전통적인 사찰지를 지속 가능하고 대중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2022년 ‘지리산 화엄사’를 시작으로 2023년 ‘팔공산 은해사’, 2024년 ‘덕숭산 수덕사’를 제작해 한국불교문화포털에 공개해 왔다. 올해에는 ‘태화산 마곡사’와 ‘조계산 송광사’를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사지-태화산 마곡사’를 포털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화산 마곡사’는 역사·인물·가람·신행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삼국사(三國師)로 불리는 자장·범일·도선 스님을 중심으로 천년고찰 마곡사의 역사를 다룬다. 또한, 금용 일섭 등 근현대 스님 및 백범 김구와 같은 역사적 인물 중 마곡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을 발굴해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마곡사의 현재를 잘 보여 주는 마곡사의 사회 공헌 활동, 성보박물관 등 문화시설, 대중 친화적인 포교 활동까지 담아내, 마곡사가 한국불교에서 가지는 위상을 재조명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 제작은 1700년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 전통을 현대 기술로 전승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그 내용은 한글 문장으로 쉽게 서술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한국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반으로서 ‘한국불교문화포털’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디지털 사지-태화산 마곡사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소개되던 마곡사의 역사와 가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마곡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구미 대둔사,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

9월 14일 산사음악회서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가 9월 14일 경내 일원에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 낸 대표적 고승 사명 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삶과 행적을 현대적 뮤지컬로 재현하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다.

극단 야성이 준비한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에서는 주제곡을 비롯해 △선조와 동인 서인들 △나는 전쟁을 원해(토요토미 솔로곡) △일어나라 승병들아! △대마도에서(사명 대사 솔로곡) 등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곡해설은 이진국 극단 야성 단장이 맡는다. 호국불교의 서사와 웅장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지 서원 스님은 “사명 대사가 대둔사에서 이룬 호국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 뜻을 되새기고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직지사의 사명 대사 공원을 둘러보시고 저녁에는 대둔사에서 갈라쇼를 관람한다면 역사를 음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라쇼는 대둔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문화부와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후원한다. 무료 관람.

행사 당일 방문객은 사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둔사로 문의하면 된다. 054-482-3807

김내영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9/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틱낫한 행복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전심법요 완릉록	정운	운주사
4	하루 한 컷 내 인생 위로하는 영화대사 필사	육상효	모과나무
5	월호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강설	월호	조계종출판사
6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불광출판사
7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불광출판사
8	초역 부처의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9	꽁꽁 싸맨 보따리	이성수	담앤북스
10	날마다 부처님(불교컬러링북)	무여	그봄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수심결과 마음공부	법상	불광출판사
3	네가지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4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6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7	스스로 깨어난자 붓다	카렌암스트롱/정영목	푸른숲
8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9	이와같이 살았으면(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여천 무비	염화실
10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대원불교 문화총서9)	한상희/윤정은 그림	운주사

'인연'과 '생명'에서 삶의 지혜를 찾다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스님 지음 / 소리여행 그림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나는 절로' 를 기획한 묘장 스님. 현재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매회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하동 쌍계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과 묘장 스님(아래 왼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현대불교 자료사진

'나는 절로' 탄생과 숨겨진 얘기
'힙 불교'는 틀 깨고 다가선 덕분
사랑 본질 담은 불교 일화 지혜도
"운명 대신 매일 인연 가꾸려 노력"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청춘남녀들을 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명실상부 불교계 대표 '히트 상품'이다. 매회 20~30명 정원에 1000명이 넘게 접수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취재 열기가 뜨겁다.

'나는 절로'의 인기를 견인한 이는 최근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소임을 맡았던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스님은 신작 에세이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에서 '나는 절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회차별 숨겨진 뒷이야기와 참가자들의 사연 등을 풀어놓았다.

'나는 절로'는 10여년 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편한 것으로, 2023년 11월 열린 1기와 12월 실시한 2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흥미를 자극하는 제목이 한몫하는데, 이는 홍보 SNS에 달린 "그럼 이건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네"라는 댓글에서 힌트를 얻은 것.

이듬해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3기부터는 프로그램도 대폭 손질했다.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푸른 자연의 마곡사,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낙산사,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 등을 개최지로 선정했다. 또 참가자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도록 했고,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취침 시간을 저녁 9시에서 11시로 늦춰 대화 시간을 확보했다. 또 게임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이에게 원하는 상대와 저녁 공양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 참여 열기를 높였다.

스님들은 후원자를 자청했다. '나는 절로' 개최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 조언을 건네는 한편, 커플로 맺어진 이들에게 '현커(현실 커플) 지원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하동 쌍계사 편에 직접 참석해 따뜻한 법문과 선물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커플 성사율은 최고 60%에 이르렀고, 실제 결혼에 골인한 이들도 있다. '나는 절로' 공식 1호 예비부부는 오는 10월 19일, 2호 예비부부는 11월, 3호 예비부부는 내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묘장 스님은 "남녀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보듬은 일이야말로 지극한 자비의 실천이기에 '나는 절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나는 절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서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불교가 '힙(Hip)'해진 이유 역시 "낮은 진입 장벽, 넓은 포용성, 마음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의 이 흐름이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한국불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편, 책의 2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에는 사랑의 본질을 일깨우는 불교 일화를 담았다. 묘장 스님은 고타마 싯다르타와 야소다라, 마하가섭 존자 부부, 의상 대사와 선묘 낭자 등의 일화를 통해 '사랑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사랑이 되는' 인연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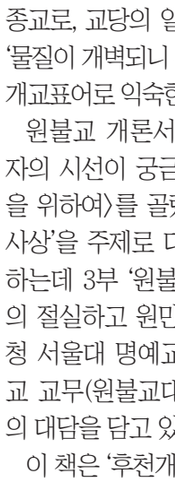
"사랑은 단지 두근거리는 감정 그 이상이다. 뭇 생명을 부처로 보았던 부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만한 공덕 지음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할 것이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 또한 해탈할 테니 말이다."

3부 '끝없이 넓은 세계와 나와 남이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다'에는 일상의 지혜를 전하는 글이 실려 있다. 묘장 스님은 주지로 있는 연화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밥心'과 MZ세대들을 위한 '부처님 생신 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현대인들의 눈높이와 생활방식에 맞게 불교를 각색한 '맞춤 포교'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불교를 '지금 여기'에 숨 쉬는 종교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묘장 스님은 갈수록 사람을 대하기 힘들어지고, 관계 맺음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여겨지는 건 "그 사이에 욕망과 욕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꿔 가는 좋은 인연의 기술"이라고 당부한다.

이웃 종교 책 읽기

가깝고도 먼 종교, 원불교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백낙청 외 지음
창비 / 2만5000원

'개벽사상' 주제로 종교 탐구
원불교 일원상·윤회설 등 논의

불교와 가장 가깝고도 먼 종교는 원불교가 아닐까. 원불교는 우리나라 7대 종단 중 하나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의 단체에서 불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들과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원불교에 대해 '잘' 아는 불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창시한 종교로, 교당의 일원상(一圓相) 혹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로 익숙한 정도가 아닐까.

원불교 개론서들은 많지만 외부자의 시선이 궁금해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를 골랐다. 이 책은 '개벽사상'을 주제로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데 3부 '원불교, 자본주의 시대의 절실하고 원만한 공부법'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전도연 원불교 교무(원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대담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후천개벽사상이 동학에서 시작해 원불교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큰 전통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원불교가 가장 원만한 진전을 이룬 사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백낙청 교수는 "소태산 박중빈 선생에 와서 후천개벽사상이 불교와 융합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의 전편(前篇)은 〈개벽사상과 종교공부: K사상의 세계화를 위하여〉(창비, 2024)이다. 여기서는 △소태산 박중빈은 누구인가 △정신개벽 운동의 시작 △최초의 설법에 담긴 뜻 등 다소 기초적인 주제들을 다뤘다.

이번 책에서는 △원불교에서 물질과 정신, 초월적 유일신의 문제 △'일원상'에 담긴 동아시아의 종합적 사유 △수운과 소태산의 비교 △원불교의 공 사상과 윤회 등을 논의한다.

일원상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원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해 전도연 교무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라고 부르는 일원상은 논리로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말하자면 직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걸 개발하는 방법이 불교에서 화두는 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원불교의 윤회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전 교무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소태산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내놓으신 걸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내용이지 논리로 따져서 받아들이는 대상은 아니"라며 "인과보응에 기반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세상은 답이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불교가 세계적 주교(主敎)가 될 것'이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예언이다.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중생의 혜·복(惠福)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중생의 혜·복(惠福)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불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의 지향 아닐까. 여수령 기자



“상근기는 참선, 하근기는 염불? 틀렸다”



선정겸수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8000원

참선과 염불 수행의 융회(融會)
선에서 정토 수용하는 ‘선정일치’
역대 선사들의 정토관 탐구
“수행 양극단 넘어 해탈의 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선을 선방에 앉는 좌선의 모습으로 국한시키거나 염불을 염불당의 염불 소리에 한정시키면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수행이 되지 못한다.”

평생을 선 수행에 매진하던 수좌 스님들이 염불 수행을 겸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멀리는 조계종의 종지를 밝힌 중천조(重闡祖) 보조지눌(1158~1210) 선사가 〈염불요문(念佛要門)〉을 저술해 열 가지 염불법을 알렸고, 가까이로는 무주청화(1923~2003) 스님이 선정겸수(禪淨兼修)의 입장에서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은 최근 출간한 〈선정겸수〉에서 참선과 염불 수행법을 융회(融會)해 집대성했다. 오랜 세월 수행과 교화 현장에서 염불 행자들과 참선 공부에 향상이 더딘 불자들을 만나며 ‘선과 정토에 대해 지금까지 천착하고 참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보자’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9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암 스님은 “선정겸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향했다’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에서는 선정겸수의 역사적 연원부터 확립과 전개 그리고 오늘날의 현황까지를 밝히고자 했다. 또 복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염불이 아닌, 염불 그대로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 수증의 종지는 견성(見性)이고 정토 수증의 종지는 견불(見佛)”이라며 “종지의 견지에서 논하면, 견성과 견불을 함께 닦는 것이 선정겸수”라고 설명했다.

“정토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견불이란 마음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선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마음 성품을 본다는 것이니, 중생의 성품이 불성이므로 선과 정토에서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견성과 견불은 결국 동일한 의미가 된다.”

책에서는 선의 참구와 정토의 염불이 어떻게 융회되고 회통되어 선정일치과 선정겸수가 이뤄져 ‘염불선’이라는 방편으로 제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특히 ‘선에서 정토를 수용하는 선정일치와 선정겸수의 사상과 실천’을 주로 설파한다.

1장에서는 원효 스님이 주장한 일심정토(一心淨土) 사상을 논구한다. 2장에서는 선종에서의 선정겸수의 연원을, 3장에서는 정토종에서의 선정겸수 연원을 밝힌다. 이어 4장에서는 선정일치와 선정겸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한 영명연수, 몽산덕이, 중봉명본 선사 등을 사상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보조지눌, 태고보우, 나옹혜근, 청허휴정, 허주덕진, 무주청화 등 한국 선사들의 정토관을 탐구한다.



한국불교 선맥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이 참선과 염불 수행의 융회를 집대성한 〈선정겸수〉를 출간했다. 사진은 9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월암 스님은 “선과 정토는 수행방법과 표면적 지향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두 전통 모두 중생이 본래 지닌 청정심, 즉 불성을 발형해 해탈하고자 하는 것을 최종 귀착점으로 한다”며 “궁극적으로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며, 모든 중생이 청정한 진여불성의 자각을 실현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수행과 신행의 양극단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국에 유학하여 중원의 여러 선종 조정을 참학하고 백림 선사, 진여 선사, 남화 선사, 용천 선사 등의 선원에서 안거 정진했다.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선학을 전공해 ‘돈오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양사, 화엄사, 마곡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대승사, 기기암, 백담사, 한산사 등 제방 선원에서 54안거를 성만했다. 지리산 벽송사 선원장, 영천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며 선학 정립과 선원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선율겸행〉, 〈전등수필〉(1, 2권) 등이 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한상희 지음
용정운 그림
운주사 / 1만2800원

우정·건강 등 열 가지 삶의 지혜
동화와 ‘생각거리’로 쉽고 재밌게

전학을 온 뒤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지수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민서가 말을 걸어왔어요. 지수는 민서와 함께 하교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학원도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민서는 차갑게 변했어요.

나중에야 그 학원을 민서네 부모님이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된 지수는 ‘민서가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최근 전학 온 미진이가 친근하게 말을 걸지만 ‘쟤는 또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하는 걸까?’ 의심이 들어요.

동화 ‘마음의 단짝’의 주인공 지수는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관계로 힘들어 한다. “친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의심하면서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그립기 때문이다.

〈보왕삼매론〉은 “친구를 사귈 때 내게 이롭기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사귀는 데 내 이익만 앞세우면 의리를 잃기 쉽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귐을 길게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대로 숨김없는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자 지수와 미진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된다.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는 〈보왕삼매론〉에 담긴 열 가지 삶의 지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로 엮은 책이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회색곰 뭉치’와 ‘남이 내 뜻대로 다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꼬마 너구리 뮤의 숲속 생활’, ‘억울함을 당해서 다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상미의 눈물’ 등 10편의 동화가 실렸다.

각 동화에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보왕 삼매 말씀’과 ‘지혜 보따리’를 덧붙여 동화가 주는 메시지를 새겨볼 수 있게 했다.

작가는 “〈보왕삼매론〉은 살면서 걸림돌을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장애가 되었던 걸림돌이 오히려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깨우쳐 준다”고 말한다. 동화작가 한상희 씨가 글을 쓰고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용정운 씨가 그림을 그렸다.

여수령 기자

오늘의 감성으로 번역한 ‘법구경’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옮김
민족사 / 1만3500원

부처님 가르침 423수 게송에 담아
문맥·운율 맞춰 간결한 시로 표현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매듭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법구경〉 ‘쌍서품’ 중에서

‘불교 경전의 에센스’라 불리는 〈법구경〉은 팔리어로 〈담마빠다(Dhammapada)〉라고 하며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423수의 게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윤리, 도덕, 절제, 노력, 정진,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지혜, 명상, 수행, 해탈, 윤회, 열반 등 불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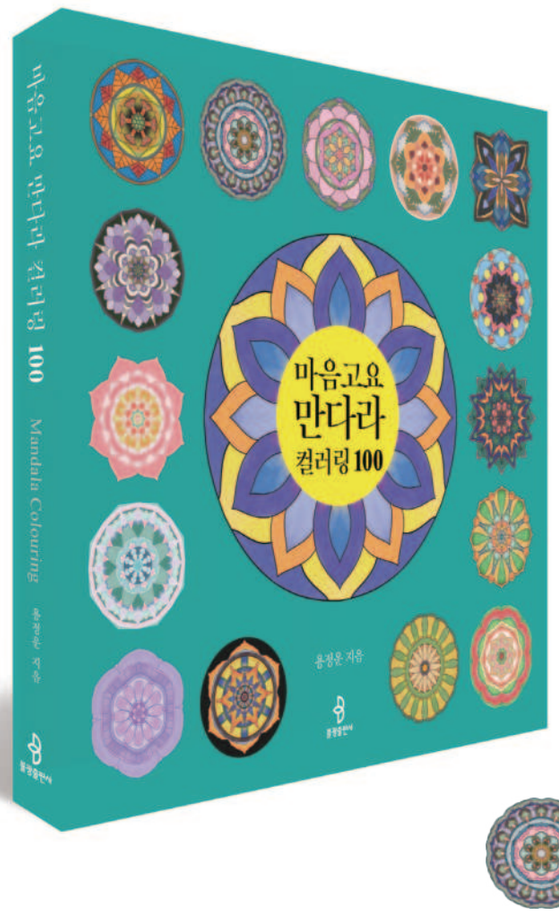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는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가 〈법구경〉을 오늘의 감성으로 다시 번역하고 다듬은 책이다. 특히 경구들을 간결한 시 형태로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의 여러 번역을 참고하되 원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고, 독자들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맥과 운율을 맞췄다. 경어체를 사용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좀 더 마음 깊게 다가가고 싶다”는 뜻에서다.

윤 대표는 “〈법구경〉은 붓다의 말씀 가운데 삶의 근본을 꿰뚫는 한 줄 문장들로 가득한 책”이라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 같다”고 감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구경〉을 눈앞에 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한다.

윤창화 대표는 평창 진부 출신으로 13년간 출가생활을 했다. 수계 후 8년 동안 탄허 스님 시봉을 했다. 1972년 해인사 강원,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 민족사를 설립했다.

저서로 〈왕초보, 선(禪)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불교사자성어〉, 〈불교지식꽁트〉 등 이 있다.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의 성격과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등을 썼다.

여수령 기자



100가지 만다라와 함께 하는
출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명상 카툰 작가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가
마음공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그려낸 100가지 만다라 도안 수록!

미술 치료 기법 중 하나이자 명상의 한 방법, 만다라 컬러링!
선으로 이루어진 만다라에 색을 입히다 보면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 대신
고요한 마음에 다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고요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지음
144쪽 | 양장 | 올컬러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형태의
100가지 도안
만다라 컬러링 시리즈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그림
144쪽 | 양장
18,000원


마음챙김 만다라 컬러링 100
혜장 엮음
132쪽 | 양장
14,000원


만다라 컬러링 100
편집부 엮음
128쪽 | 양장
14,000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겸당(謙堂)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



겸당(謙堂)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은… 1978년 문인화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후 서예와 고려사경을 함께 익히며 50여 년간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사경을 '문자사리, 곧 법사리'라 규정하며 단순한 필사가 아닌 수행으로 실천해 왔다. 중봉 운필법을 통해 불교의 중도 사상을 체득했고 '부처님 말씀을 장엄하고 그 공덕을 회향한다'는 원력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왔다. 탄허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경 공모전 대상, 직지 국제사경공모전 대상, 동아국제미술대전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전 심사위원과 각종 서예대전 심사를 맡았다. 북경 초대전, 인도 마더 테레사 기념관 벽화 작업 등 해외 활동도 활발히 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 사경 제1호 명인에 이어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선정됐다. 2023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인전에서 '영골사리 부도비문', '금강경 오가해', '화엄경 약찬게' 등 50여 점을 선보였다. 현재 양산 신평마을에서 전통사경연구원을 운영하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통 사경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경전을 법사리로 빚는 붓끝의 수행

붓끝에 부처님 말씀 법사리로 새기다
병고의 시련에서 다시 붓을 잡은 인연
중봉 필법을 통해 느끼고 터득한 중도
사경에 수행·신앙·예술적 경지 담아
한글 사경으로 누구나 쉽게 읽도록
우리 전통 사경문화, 인류의 유산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경전은 곧 법신이며, 그 글자는 법사리다. 오현주 전통사경연구원장은 반세기 넘게 붓끝에 생명을 불어넣어 법사리를 새겨 왔다. 서예와 문인화로 단련된 붓끝은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전통 사경으로 피어났고, 그의 하루는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일로 채워졌다. 그에게 사경은 예술이자 수행, 곧 삶이었다.

사경이 어떻게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듣고자 8월 26일 양산 통도사 인근의 전통사경연구원을 찾았다. 연구원에는 묵향이 은은히 감돌고 벽면에는 직접 쓰고 그린 경전과 변상도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푸른 저고리에 붉은 고름을 맨 오현주 원장은 차분하게 차를 내어 주며 맞이했다. 표정은 담담했으나 사경 이야기가 시작되자 눈빛이 반짝였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듯, 저한테는 먹을 갈고 경전을 쓰는 게 일상이에요. 사경 정진으로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병고 속에서 만난 사경의 길

1978년 서예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그는 문인화를 함께 익히며 서화가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전시와 입상을 거듭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외형적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곧 공허함을 느꼈다. 서예와 문인화 중심의 작품은 한동안 멈칫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닥친 병고가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여섯 해 동안의 간암 투병에도 늘 경전을 가까이 두었던 것이 사경의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필사였으나, 그 단순한 '옮겨 씀'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가라앉는 체험을 했다.

"붓 잡을 힘조차 없을 때도 경전을 한 자 한 자 쓰면서 제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의 고통은 오히려 그를 붓 앞으로 강하게 이끌었다. 예술을 추구하던 붓은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수행의 붓이 됐다. 사경 공덕으로 입은 부처님 가피를 회향하는 길이기도 했다.

사경, 수행과 예술을 잇는 다리

오현주 원장이 후학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경의 핵심은 서예와 마찬가지로 '중봉(中鋒) 필법'이다. 붓을 바르게 세워 중심을 잡아야만 선이 곧고 기운이 흐른다. 중심을 잃으면 글자의 모양과 맥이 흔들리듯, 사람도 한쪽으로 기울면 쉽게 무너진다.

중봉은 필법을 넘어 마음의 작용을 드러낸다. 마음이 향하는 바에 따라 획마다 천차만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바른 뜻이 살아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오현주 원장은 말한다.

"중도의 삶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한 획을 쓰는 과정은 곧 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된다. 중봉으로 써 내려간 글씨는 선이 고르고 맥이 순리에 맞아, 자유롭고도 힘 있는 기운을 드러낸다.

작품에 담긴 불연(佛緣)도 눈길을 끈다. 그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탁본 작업을 보던 중 어떤 끌림으로 비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경해야겠다고 발원했다. 혜남 스님(전 통도사 율주)과 관정 스님(통도사 금수암)의 자문을 바탕으로 전통 고려사경으로 완성한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사경 작품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인전에서 공개돼 많은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정토 신앙의 핵심을 담은 '변상도 있는 불설아미타경' 사경에 얽힌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오 원장은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불설아미타경〉을 사경하던 중, 한순간 자신을 잊는 경계를 체험했다. 완성된 작품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시에 초청돼 처음 공개됐는데, 현지 불자들이 합장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사경 작품이 국경을 넘어 불심(佛心)을 일으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전통 고려사경으로 완성한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사경 작품 표지(왼쪽). 표지는 감지금니(紺紙金泥)로 재현, 장엄했다.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속지(가운데와 오른쪽). 비문 내용을 사경하고 현대인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옮겼다.



오 원장은 창원 성산아트홀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2024년 고성박물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열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사진은 2024년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초청 전시 '환희의 정원' 당시 무비 스님(사진 가운데)과 함께 한 기념사진.(오른쪽 두 번째 오현주 원장)

이 작품에는 특별한 사연도 따랐다. 한 어머니가 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작품을 구하러 왔다. 중학생 아들이 물에 빠진 여학생 둘을 구하고 큰 장애를 얻었다는 사연을 들은 그는 "사경 작품은 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모셔다 기도하시라"며 작품을 건넸다. 어머니의 간절함과 부처님의 가피로 점차 아들의 상태는 좋아졌고, 그 후 작품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다.

한글 사경, 불법을 널리 전하는 통로

오 원장은 그간 창원 성산아트홀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2024년 고성박물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열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전시에서 그는 '금강경 오가해(고려 변상)', '청대 오백나한도', '불설지장경' 등 수천 자에 이르는 두루마리 대작을 비롯해 감지에 금니로 작업한 '묘법연화경 변상도',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금강경 탑다라니' 등을 발표했다. 또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규장각본)'와 통도사 '석가세존 영골사리 부도비문' 재현 작품 등 90여 점을 공개하며 사경이 단순한 경전 필사가 아닌 예술·수행·신앙적 경지임을 보였다.

최근에는 한문 변상도에 한글을 곁들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한문 경전뿐 아니라 〈훈민정음〉, 〈월인석보 언해본〉 등을 한글로 사경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강경', '화엄경(약찬게)', '부모은중경', '경허선사발원문', '능엄경' 등 많은 작업이 그의 손끝에서 한글로 새겨졌다.

오 원장은 전통 사경 기법을 이어가면서도 누구나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원력을 두고 있다. 그는 "경전이 아무리 장엄해도 읽지 못하면 마음에 닿을 수 없다"며 "한글 사경은 불법을 널리 전하기 위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전통사경'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되길

개인 작업 외에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사경실에는 늘 묵향이 감돌고,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싣는다. 그는 후학들에게 "사경은 글자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자리에서 화합하고 모든 글자와 그림과 선에 '참마음'을 새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는 사경이 수행과 전승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나아가 전통사경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사경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을 거쳐 이어져 온 천년의 전통이지만, 지금 그 맥을 온전히 잇는 이가 귀하기 때문이다.

"사경은 천 년을 이어 온 전통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글자를 옮기는 일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자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전통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들이 붓을 잡고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장엄하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4 업연에 대하여



▶한줄 요약
상대적인 모습이 사바세계의 속성인 줄 깊이 알고, 마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음을 여실히 잘 알아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업연(業緣)의 모습임을 무심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마음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되고 항상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만다는 것은 오직 '마음'!

[오늘의 명상]
뜨거운 해는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차가운 달은 뜨거운 분(憤)을 식혀 주네.
햇님 달님 나를 조율(調律)해 주는 부모이리니
밝아지면 해를 죄고 저물어 지면 달을 품으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오직 마음이니, 마음 또한 상대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해가 있으니 달이 있고, 낮이 있으니 밤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니 차가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차 윤회하는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마음과 감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으니,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선과 악,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업식(業識), 즉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의 감정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서로 교차하여 윤회하니, 극락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오고 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반대적인 마음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것을 업연(業緣)이라 하고, 그 업연에 의하여 현실의 모양이나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인연이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업연이 먼저 있으니, 그림자인 인연이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생(生)과 사(死)의 업연이 이미 자리하고 있으니, 현실의 모습 또한 생기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절대 현실로 나타날 수 없고, 따라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업연이 인연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니, 무엇이 되었건 내 마음 밖에서 바꾸려 하거나 이루려 함은 물체에서 나온 그림자를 바꾸려 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려 하거나, 부자가 되려 하거나, 건강하려 하거나, 죽지 않으려 하거나, 행복하려 하거나, 기쁨을 얻으려 하는 등의 일을 성취하려 함은 설사 바라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반대적인 업연 또한 똑같이 생겨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곧 불을 불로 끄려 하는 것과 같고, 물을 물로 말리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아무리 현실이 급하다 하더라도 업연이 반복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둘의 상대적인 모습이 사바세계의 속성인 줄 깊이 알고 마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음을 여실히 잘 알아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업연의 모습임을 무심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마음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되고 항상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것이 제일이니, 기도와 보시, 정진은 나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해가 있어 달 있고, 낮밤이 생겨나
이들 교차 윤회하는 곳이 '사바세계'
마음도 다르지 않아 '업식'도 발생
업연에 매달리지 않으면 평온해져
평안 위해 기도와 보시, 정진하라

[오늘의 명상]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지지리도 복 없음을 탓하며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워 가지고 있던 금 한 냥을 창문으로 던져 주었다.
그러나 하필 던진 금덩이가 머리에 맞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 자리서 죽고 말았다.
복 없음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복을 지었더라면….

살다 보면 나와 남을 막론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알려거든 지금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고, 미래를 알려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은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힘들고 괴롭히는 경향이 짙습니다.

과거생이란 이 순간을 지나는 때, 어제, 그리고 10년 전, 100년 전, 또는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나타나 겪는 모든 일들 즉, 현상과 대상, 인연 되는 것들은 내 마음의 고락(苦樂)의 업(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 쾌락과 행복을 지나치게 바라고 추구한다면, 괴로움과 슬픔, 고통과 불행이라는 상대적인 현상이 똑같은 질과 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그 시간(때)을 달리할 뿐입니다.

복이란 인과(因果)가 윤회(輪廻)하는 모습을 여실히 잘 살펴 아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요행을 바라거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현상에 대해 인과와 인연의 소치로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니 이를 복이라 말합니다.

당장의 일에 집착하여 인과를 믿지 않고 인연에 대해 소홀한 생각으로 더욱 성내는 마음을 가진다면 인과를 피할 도리가 없을 뿐더러 스스로 괴로운 마음을 자초할 뿐이니,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마음은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기도와 보시, 정진은 복을 갖추는 요긴한 자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⑬ 응혜(應慧 · 應惠) 스님



▶한줄 요약
응혜 스님은 승일 스님의 계보를 계승하면서 40여 년 동안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사찰에 불상을 조성한 17세기 중 ·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17세기 중·후반 호남·영남 활동 대표 조각승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43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47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제주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국가유산청

1640년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도(道)·부(府)·목(牧)을 대표하는 사찰의 중심 전각이나 부속 전각이 중건되면서 수많은 불상이 조성됐다. 이러한 불상 제작의 수요 증가는 실력 있는 조각승들이 늘어나는 기반이 되었다.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승일 스님의 제자였던 응혜 스님과 계찬 스님은 30~40년에 걸친 작품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구된 작가로서 전국 여러 사찰에 그들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조각승 응혜 스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34년 7월 밀양 표충사 목조삼전패 조성묵서에서 확인된다. 당시 그는 스승 승일 스님과 함께 작업했으며 나무를 조각하는 소목장(小木匠)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응혜 스님은 1636년 12월 부여 무량사에서 여러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작된 불상 중 1구가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이다. 승일(勝一) 스님을 수화승(首畫僧)으로 하여 혜윤(惠允)과 도우(道祐) 스님을 비롯한 총 9명의 조각승이 이 불사에 참여했으며 응혜 스님은 여섯 번째로 기록돼 당시 조직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계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응혜 스님은 1639년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四)보살상(보물)을 승일(勝日)·영색(英賾) 스님 등과 제작하고, 5년 후인 1643년 수화승으로 달성 용연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조성했다. 1644년 승일 스님과 함께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을 제작할 때는 14명의 조각승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돼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응혜 스님은 수화승으로 1647년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651년 진주 지리산 은정대 석가삼존상, 아미타삼존상,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등을 만들었다. 지리산 은정대에서 조성된 석가여래 1존과 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 2존, 그리고 아미타불 3존과 관음보살·지장보살 각 1존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조성 발원문만이 통영 안정사에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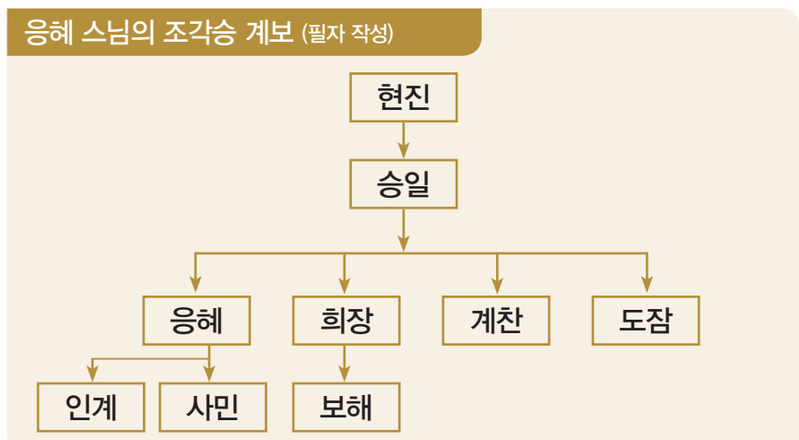
이후 응혜 스님은 1652년 3월부터 5월까지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보물), 1657년 화순 개천사 불상, 1660년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만들고, 1671년 장성 백양사 청심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살상은 현재 제주 심광사와 신안 일심사에 각각 봉안)을 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응혜 스님의 마지막 작품은 1678년 지리산 소은난야(小隱蘭若)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이 가운데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이 광양 무등암에 전한다.

이와 같은 문헌을 중심으로 응혜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610년을 전후해 태어나 1620년대 불상 제작에 수련기와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후 1630년 전반에 조각 재능을 인정받아 승일 스님과 밀양 표충사 목조삼전패를 만들었으며, 1640년대 중반부터 1670년대까지 수화승으로 영남과 호남 사찰에 불상을 조성했다. 응혜 스님은 수화승으로 대구 달성, 경남 진주와 창녕, 전북 군산, 전남 화순, 담양과 장성 등 7곳의 사찰 극락전과 명부전 등에 불상을 조성했다.

응혜 스님과 함께 불상을 주로 제작한 조각승은 계찬 스님과 인계 스님이다. 계찬 스님은 1643년 응혜 스님과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1646년 승일 스님과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47년 응혜 스님과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48년 승일 스님과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3년 청도 무차루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만들었다. 이어 1657년 수화승으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고, 1671년 응혜 스님과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은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며, 1686년 수화승으로 부산 금수사 목조여래좌상을 만들었다.

스승 승일 스님 계보 잇고 40여 년간 활동
달성 용연사 · 창녕 관룡사 등에 불상 조성
후배 계찬 · 제자 인계 스님에 특징 이어져



또한 인계(印戒) 스님은 1644년 승일 스님과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을 만든 후, 수화승 응혜 스님과 1653년 청도 무차루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78년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 등을 조성하고, 1689년 수화승으로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하여 17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응혜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현진(玄眞, 이하 활동 시기 1604~1639)→승일(1622~1670)→응혜(1634~1678)·희장(熙藏, 1636~1667)·계찬(1643~1686)→인계(1644~1689)·사민(1652~1689) 스님으로 이어진다.

응혜 스님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불상은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이다. 높이 61.7㎝의 중형 보살상으로, 높고 커다란 보관(寶冠)에는 연화문과 화염문 등이 빽빽하게 돋을새김 되어 있다. 얼굴은 앞으로 내밀고 상체를 곧게 세우고 있다. 방형의 얼굴은 일자형으로 가늘게 표현된 눈과 높은 콧대가 특징이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다. 별도로 제작해 끼운 양손은 같은 높이로 들어 올려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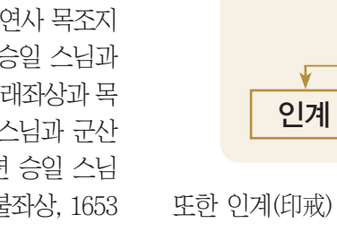
착의법을 살펴보면, 대의 안쪽에 부견의(覆肩衣)를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완만하게 반원형으로 겨드랑이까지 늘어진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특히 하반신 중앙에 넓게 펼쳐진 대의 끝단 옆으로는 출렁이는 듯한 주름이 접혀 있다. 대의 안쪽에 착용한 승각기(僧脚崎)는 상단을 수평과 사선으로 처리했다. 보살상 뒷면을 보면 목둘레에 대의 끝단이 둘러져 있고, 왼쪽 어깨에는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응혜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스승 승일 스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온화한 인상과 착의법을 계승했으며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후배 조각승 계찬 스님과 제자 인계 스님에게 전수됐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6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러 다닌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무희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주택 지상권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 용도 : 토굴, 요양, 주말휴식
- 방1 주방1 화장실 실내1, 실외1
- 창고3 원두막1 잔디마당
- 리모델링, 에어컨 설비, 기름보일러
- 4가구 거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2800만원

010-5454-766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읍
- 평 수 : 530평
- 법 당 : 13평 목조
- 요사채 : 70평
- 가 액 : 2억 2천

010-9940-0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액 : 5억(절충 가능)

010-5635-94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 20평 정동향)
- 요사채 : 30평 (방3 화2 정남향)
- 황토찜질방 1동 3평
- 대형E마트 도보 3분 위치
- 30대 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 3천만원(토지가격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평수 600평(법당 60평. 요사채 7방)
- 커피숍 운영 공간 있음
- 금액 : 상담 후 결정

제주도 한라산 아래 위치한 사찰에서 한달기도도량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064-752-0108
010-2300-195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위길 37-25
- 대웅전 20평 삼존불 신중탱화
- 주차 10대 가능 주차장
- 요사채 방1 부엌 화장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살림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010-9017-4872

별 장 토 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분천리 비룡산 700고지
- 임야 : 2631평/대지 : 55평 (전체토지 준보전산지)
- 작은계곡 접함
- 컨테이너 1동포함
- 금액 : 5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모라동

백양산 천연굴법당

- 요사채 법당 15평 별도 존재
- 몽땅 7000만원 (조절 불가)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현저 스님 기도 중(신도 다수)

010-9010-5400

사 찰 안 내

- 장소 : 경북 포항
- 대지 : 1500평
- 건평 : 100평(법당, 공양간, 스님방, 종무소, 삼존불)
- 6년차 신축건축물
- 매매금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2층. 청암영봉 부처화실
- 임법당 필요한분 무상임대
- 1층 토굴 사용할 분 무상임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미타 불

010-3736-069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발수코팅 · 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I 010-3747-2111
TEL I 031-451-6232 FAX I 031-451-6238
주소 I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I woodgim@hanmail.net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46호 | 16 | 전면광고

비록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49재 천도재 초하루 기도

부산 경남지역
법주사 수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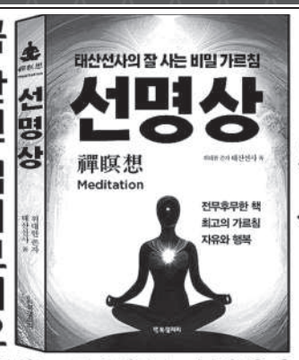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6667-4843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사무장 구함 010-4804-2309

염불교육원 수강생 모집 공고

불교 전통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불교에 뜻을 둔 일반 불자 그리고 재가 · 출가 수행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교육 과정
▶의식반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5시
천도재, 49재, 영산재 등 실전 중심 의식 실습
범패 소리의 조화와 사물 활용법 실습
▶경전반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주요 경전 해설(반야심경)

▣ 교육 기간
▶제1학기 : 2025년 9월 22일 ~
▶제2학기 : 2026년 3월 중

▣ 교육 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문 의 | 055)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찰스틸건축 전문
성공기업

스틸공법으로 목재대비 1/3 비용
공사기간 2개월로 단축



010-2628-9944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010-9260-1672

수연스님의 AI 명품운명 컨텀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운명의 길
전통 명리학과 최첨단 AI문서가 하나되어 수연 스님의 깊은 통찰로 사주 · 궁합 · 사업 · 시험 · 운세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 상담

예약전화 010-2239-0300
SUYEON SUNIM'S
AI PRESTIGE FATE QUANUTUM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양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⑰ 정각원 불단(상단) 3

아미타불, 방편일까?

우리나라 불교의 특색이란 무엇일까?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불교와 견준다면, 우리나라 불교의 특수성은 삼문수업(三門修業)에 있다.

중국불교는 실천 중심의 선(禪)과 정토(淨土)에 있고. 반대로 일본불교는 종파불교로 각종이 서로 교학의 우수함을 내세움으로써 종학(宗學)이 발달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불교의 경우 실천으로서 선과 교학으로서 화엄, 의례로서 정토라는 세 가지 문을 세웠는데, 이를 삼문수업이라고 한다.

즉, 선을 닦는 경절문(徑截門), 화엄을 배우는 원돈문(圓頓門), 정토의례를 중심으로 한 염불문(念佛門)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절문-수행, 원돈문-교학, 염불문-신앙이라는 형태로 실천이나 교학 한쪽에 집중하는 중국·일본의 불교보다 종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5가7종의 가풍 중 유독 임제종과 간화선만을 선택하는 경절문과 팔만사천의 경전과 논서 속에서도 오로지 화엄만을 강조하는 면에서 외골수적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토교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간화선과 화엄학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맞을까? 삼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대궐집에 주인들이 드나드는 대문이 두 개 있고, 그 옆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 시종들이 오가는 쪽문 하나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각원 상단의 부처님 앞에서 이런 사색을 갑자기 쏟아내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각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이다. 선방에서 방부를 틀거나 강원과 율원에서 연찬하는 일은 스님들의 이력에 당당히 적히는 반면, 부전을 살았다는 사실은 크게 자랑하거나 이력으로 여기지 않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불교학의 최대 거점인 동국대 주법당에는 왜 아미타불을 모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산책할 사색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말이 길어져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미타불 이야기이다. 아미타불 이야기를 독자층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미타불은 오랜 옛날 세자재왕여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한 나라의 왕이었다. 그는 붓다께서 세상에 나오셨음을 알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법장 스님이 됐는데, 세자재왕여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붓다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리라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세자재왕여래의 위신력을 빌려 무한히 많은 여러 붓다의 정토들을 관찰한 다음, 모든 불국토의 좋은 점을 모아 자신의 정토를 계획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이 세울 정토의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그린 것이다.



성남 정토사 아미타불 내영도의 일부.

사진 출처=성남 정토사 홈페이지

한국불교 특수성 삼문수업에 있어
정토교, 간화선 · 화엄학 위상 의문
미타정토는 상식을 뛰어넘은 세계

이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5겁(劫)이다. 한 변의 길이가 40㎞인 정육면체의 강철을 선녀의 옷깃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쓸어 다 닳을 때까지의 시간을 1겁이라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에서 대전의 거리가 대략 200㎞이다. 서울과 대전까지의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의 강철 덩어리를 선녀의 옷깃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쓸어서 다 닳을 시간 동안 법장 스님은 자신의 블루프린트를 작성한 것이다. 얼마나 야심만만한 그림이었을까.

그는 완성된 자신의 블루프린트를 들고 다시 세자재왕여래 앞으로 갔다.(참고로 세자제왕여래의 수명은 42겁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존경하는 붓다 앞에서 법장 스님은 당당하게 블루프린트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48대원이다.

48대원은 법장 스님이 자신이 어떤 부처가 될 것인지, 자신이 만들 정토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순서대로 섭법신원(攝法身願), 섭정토원(攝淨土願), 섭중생원(攝衆生願)이라고 하며 48개 각각의 원은 이 세 가지 원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아미타불 신앙의 핵심으로 알려진 십념왕생원은,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열 번만 부르면 임종 때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48대원 중 제18원이며, 큰 범주에서는 섭중생원에 속한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붓다 중에서 최고의 붓다가 될 것이고, 자신의 세계가 모든 정토 중 최고의 정토가 될 것이며, 자신의 세계에 태어날 중생들은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라는 이 야심을 법장 스님은 세자재왕여래 앞에서 거침없이 드러낸다.

세자재왕여래는 법장 스님에게 그의 계획이 블루프린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실현될 것이며 48대원 모두가 성취되리라 확언하셨다.

그러고서 법장 스님은 자신의 계획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이것이 바로 법장 스님의 보살행이었다. 그 보살행을 통해 48대원의 서원이 모두 실현되는 날, 그는 아미타란 이름의 부처가 됐으며 그의 정토는 극락, 즉 극한으로 즐거운 세계라 하였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지구이며, 불교에서는 남섬부주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의 수명은 아직도 무한히 남아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께서 극락에 계속 계시는 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임종 시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한다.

고성염불이니 염불삼매니 하지만 사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성으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열 번은 불러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법장 스님은 정확하게는 '내지십념(乃至十念)'이라 하셨다. 원효정토교학의 일인자이신 보광 스님은 이 내지십념을 한 번 내지 열 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타당한 이해로 보인다. 독자분들은 지금 한 번만 아미타불이라고 외워 보시라. 반드시 아미타불이 데리러 오시리라.

아미타불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붓다의 시간은 무엇이며, 10만억 국토라는 은하단을 뛰어넘는 붓다의 공간은 무엇인지, 그저 상상의 세계가 아닌지 말이다.

현실 긍정의 선과 화엄은 좋아해도 이 정토문은 가볍게 동화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간단히 이 동화를 방편이라고 이름해 버리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 글의 목표였다. 그러나 지면은 한정돼 있어 다음 호에서 이를 이어가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파계 비구 꾸짖으면 큰 죄 얻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㉞ 파계필추에 대한 십비법(十非法)

우파리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며 부처님 발에 예배한 후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미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비구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칭하고 범행이 아니면서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비구와 사람에 대해 어떤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비구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모든 비구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쫓아냄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법이 아니므로 큰 죄를 얻으며, 지혜로운 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화합하지 않는 스님네가 ①국왕 앞에서 ②바라문 앞에서 ③대신들 앞에서 ④장자 거사들 앞에서 ⑤여인들 앞에서 ⑥거사들 앞에서 ⑦절에서 일하는 속인 앞에서 ⑧많은 비구와 비구니 앞에서 ⑨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⑩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열 가지를 비법이라 하며,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또다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다.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①외도들이 ②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 속인들이 ③무간 죄를 지은 이가 ④정법을 비방하는 이가 ⑤성현을 헐뜯는 이가 ⑥어리석고 미친 이가 ⑦고통에 얽매인 이가 ⑧스님의 심부름꾼이 ⑨동산지기가 ⑩벌을 받는 비구가 비구를 꾸짖는 것이다.

이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해 꾸짖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님에야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만일 어떤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네와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네 가운데 다른 비구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오덕(五德)이 원만한 (상좌에게)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비구 발에 공경히 정례하며, 곧 파계한 나쁜 비구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받고 (악 비구에게) 이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장로(長老)님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는 장로가 범한 죄를 들고자 합니다. ①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②때에 맞으며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③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④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냄이 아니며 ⑤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님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주면 법답고 여실히 그 죄를 들을 것이요, 만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이 비구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나는 오법(五法)에 의해 여실히 그것을 들겠습니다"라고 사뢰어야 한다.

"그때 스님네 중 상좌 비구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 범한 일의 허실과 경중을 자세히 관찰하고 율장과 경장에 의해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칠법(七法)으로 근기에 따라 범한 죄를 멸하도록 하되, 죄가 무거우면 무겁게, 중간이면 중간으로, 가벼우면 가볍게 다스리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비구가 속인·재보·변재·제자의 힘 등 세력을 믿고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율·논장 등으로 법답게 잘 뉘우치게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합니까?"

***오덕(五德)**: 자자(自恣)하는 죄를 거론할 경우 그 비구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 ②성내지 않는 것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다른 종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할 것 ③이익될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두 가지를 오법이라 하며, 본문 중에서는 후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칠법(七法)**: 교단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곱 규칙으로 ①현전비니(現前毘尼, 쟁론자를 대면해 시비를 판단) ②억념(憶念)비니(쟁론 시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의 유무를 증명함) ③불치(不痴)비니 ④백언(白言)비니 ⑤다어(多語)비니 ⑥죄처소(罪處所)비니 ⑦초부지(草覆地)비니 등이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⑰ 백로_서울 길을 걷다



▶한줄 요약
백로는 하얀 이슬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 해의 15번째 절기로, 대기의 온도가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연의 전언(傳言)이다.

대기 온도 변화 알리는 자연의 전언
〈傳言〉

백로(白露)는 지나는 것과 새로운 시간의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계절.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과 그리움의 온기가 새벽이슬로 맺히는 절기다.

아직은 물기 머금은 더운 바람이 등허리를 적시지만, 일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속에 가을은 어느새 머물러 있다. 이른 새벽, 대지를 적시는 이슬로 먼저 알려 주는 절기. 백로가 시작된다.

이슬의 시간

새벽이슬이 뜰 오동나무에 내리니
둥글둥글 맺힌 것이 새하얀 옥 같구나

봉암 채지홍의 〈봉암집〉에 담긴 시 '백로'의 한 구절이다. 한 해의 15번째 절기이자, 하얀 이슬이라는 의미를 지닌 백로.

이 무렵의 이른 아침 풍경은 뽀얀 안개와 발아래 대지를 적시는 이슬방울로 가득하다. 밤새 풀숲 위에 맺힌 저 수천수만의 이슬은 누가 옮겨다 놓은 것일까.

백로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저물고 나면, 대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아직 한낮의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는 공기는 밤새 찬 기운과 만나 바삐 움직이고, 마침내 하나의 물방울로 변해 세상에 존재를 드러낸다. 그렇게 하나둘 맺힌 이슬들은 온몸으로 세상을 투영하고, 아직 잠든 세상의 색을 담아 하얗게 피어나는 것이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이슬점'의 마법이 펼쳐진다. 오늘날 대중화된 냉난방 장치는 언제든 마음대로 공기를 뒤섞고, 그와 함께 이슬이 맺혀 흐르는 결로 현상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 무렵의 새벽이슬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이 절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삼았다.

백로. 이 이슬의 시간은 대기의 온도가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른바 자연의 전언(傳言)인 것이다.

한 계절이 또 다른 계절과 맞부딪히며 만들어 내는 힘. 그 천지의 기운이 온 세상을 유영하던 저 이슬에 스미지 않을 리 없다.

〈동의보감〉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물을 33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그중 추로수(秋露水)는 백로 무렵부터 얻을 수 있는 가을의 이슬로, 소갈증을 낫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또 백로에 콩잎 위에 내린 새벽이슬을 모아 마시면 속병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지기도 했다.



세조 5년(1459)에 창건된 수국사 대웅보전. 여러 번 소실과 중창을 겪으며 현재의 황금빛 사찰 모습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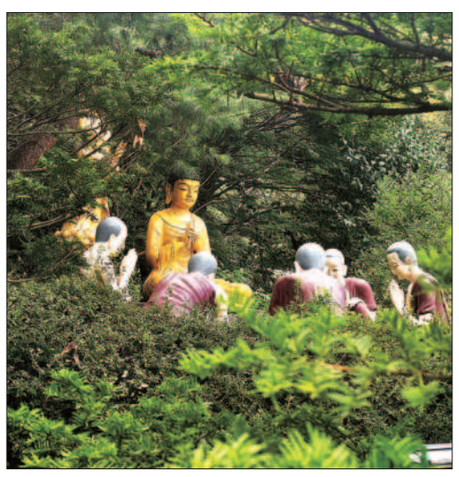
수국사 대웅보전 외부에 모셔진 미륵불.



8각 지붕의 독특한 형태를 지닌 수국사 삼성각.



수국사 염화미소전 내부에 모셔진 1250명의 아라한(나한)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최초 설법을 하는 모습이 형상화된 수국사 초전법륜상.

포도가 익는다

백로를 상징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포도다. 백로를 이르는 또 다른 말인 '포도순절(葡萄旬節)'.

이 무렵은 뭇 과실들이 막바지 당도를 높이며 성장하는 시기이지만, 그중에서 포도를 꼽는 것은 이 탐스러운 과일이 풍요와 다산, 가문의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이리라.

옛사람들이 편지 첫머리에 '포도순절(葡萄旬節)에 기체만강(氣體萬康) 하옵시고'라거나, 포도 넝쿨이 그려진 도자와 서화 등을 집안 곳곳에 둔 것은 모두 그런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는 뜻이었을 것이다.

상징은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때로는 긴긴 글귀보다 더 많은 사연을 담고, 마치 포도 넝쿨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인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진 서산 대사의 가사, 그 붉은 비단에 새겨진 포도와 다람쥐. 또 국보인 조선 시대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처럼.

그중 원숭이의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이는 여느 길상 동물들이 단순히 부귀와 다산, 장수 등을 상징하는 것과 달리, 원숭이는 더 큰 감정을 전하기 때문이다.

날쌔고 영민한 원숭이는 출세와 지혜를, 또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벽사(辟邪)와 호신(護身)의 의미도 지닌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시대 승려 이차돈이 순교하자 원숭이가 울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하지만 유독 인간과 닮은 이 동물은 그 무엇보다 뜨거운 모성애를 상징한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일컫는 '단장(斷腸)'. 이 또한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가 애통함에 죽은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또 불가에서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원숭이 달을 보고 새끼 생각에 울부짖듯/ 염려하는 생각으로 간장이 다 끊기네'라는 게송이 부모의 마음을 빗대어 전한다.

어머니가 껍질과 씨를 가려내고, 맛있는 포도 알만 아기의 입에 넣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포도지정(葡萄之情)'이라 부르던가. 뭇 생명이 알알이 익어 가는 시간. 우리는 모두 이 포도의 계절을 지나 성장한, 다디단 사랑의 상징이다.

시간을 넘어

서울의 서쪽 끝 서오릉을 곁에 둔 산자락. 봉산(烽山)을 뒤로 두르고 은평구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곳에 황금빛 사찰이 있다. 산문을 들어서는 순간, 금빛으로 장엄한 법당이 찾아온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바로 수국사(守國寺)다.

눈부신 한낮의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법당. 이곳은 세조 5년(1459), 세조의 맏아들 의경 세자가 요절하자 그의 극락왕생을 위해 세조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본래는 정인사라는 이름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소실과 수차례의 중수를 거치며 수국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국사는 1900년 월초 스님에 의해 또 한 차례 중창됐는데, 이는 1898년 당시 세자였던 순종이 병을 앓고 난 뒤, 아버지인 고종의 불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왕실의 명으로 순종의 건강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를 올린 지 80일째 되던 날, 세자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 주겠다며 금침을 놓았다. 그리고 꿈에서 깬 세자가 말끔히 병을 털고 일어나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때의 불사는 고종이 자신의 내탕금을 내어 한 것으로, 세자의 회복에 아버지인 그가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는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수국사가 황금사찰로 거듭난 것은 6·25 전쟁 이후 쇠락한 도량을 중창하며 근래에 변모한 결과이다.

화려한 금빛 외관과 달리 수국사 도량은 내내 고요하고 평온한 산사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속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어머니들이 함께 있다.

오래전 아들을 그린 한 나라의 왕부터 이 시대의 어버이까지, 포도지정의 시간은 여전히 이 금빛 도량 안에 생생히 머문다.

생과 사를 넘고, 과거와 현재를 넘어 살아오는 무언가가 있다. 환영 같은 새벽이슬도, 뭇 곡식과 과실을 살찌우는 저 햇살도 이 절기가 지나면 잠시 잊히고 말 것들. 하지만 그 시간이 키워 낸 어떤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이다. 마치 당신처럼. 〈작가〉





대행 스님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나로 살고 있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니만큼, 또 만났다고 하고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면서 돌아가듯, 우리가 헤어졌다 만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도리가 바로 그 도리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항상 둘로 나누어지고, 둘로 나누어졌다가 또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작업이 계속되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디서 왔는지를 필연코 알아야만 하겠죠. 물론 그 말을 하자면,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또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생명들을 막론하고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어 놓으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겠지만, 들어 보지 못했다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자기 마음의 진로를 넓히든지 좁히든지 작용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명하건대 우리가 공기 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알고 배우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이 자유롭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서, 모두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 하고 어리석은 듯 해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화두를 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두선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로다 치닫는가 하면 형상으로 치닫고, 형상으로 치닫는가 하면 모든 점에서 정신세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통신으로 전달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도리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라요. 그저 조금하게 불끈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해치워 버리고 그냥 말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갈갈이 뜯어 먹고 하는 경향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없이, 돌 위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긁어서 고(苦)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애고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모든 병고를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대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한데 합해져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을 또 내놓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바로 증발이 되고 모두 화해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달한 까닭에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 내놓으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놓고 이러는 작업이 계속되죠. 이 도리를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지, 목탁 치는 것만 불교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것, 미래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 오는 것, 이 전체를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삼세라고 그러죠. 또 삼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굴러 오면서 교차하면서 살아나온 그 자기의 인과 업이, 선하게 행을 했다면 선행의 업이 있을 거고 악하게 행을 했다면 악행의 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그 구성원들을 교화를 시키는 데 여러분의 마음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는 일체제불과 둘 아닌 마음을 지니고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아래로는 그 믿는 마음으로써 채찍질을 한다면 아래 내 몸속의 중생들은 스스로 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중생으로 그냥 남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거를 돈오라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생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나를 깨치는 거는 쉬워도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생 중생들은 내가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면 제도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놓고 들어가야 통신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따라가서 제도가 되는데, 바깥으로 끄달리면 절대로 통신이 되질 않아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제도가 못 되는데 어찌 내가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에 들어야 한다." 이 뜻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고 앉아 있으면 정에 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그 묘법과 그 묘용과 그 광대무변한 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전 세계에서 알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기도하고 상대에다가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하지, 자생을 제도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채찍질하면서 자기완성을 하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이렇게 나온 거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지.' 이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었다가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몸뚱이도, 젊어서 병이 들든 늙어서 병이 들든 옷이 다 하면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새 옷만 입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싹만 없어졌다 뿐이지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소립니다. 봄이 오면 새 풀이 또다시 나듯이. 그 뿌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며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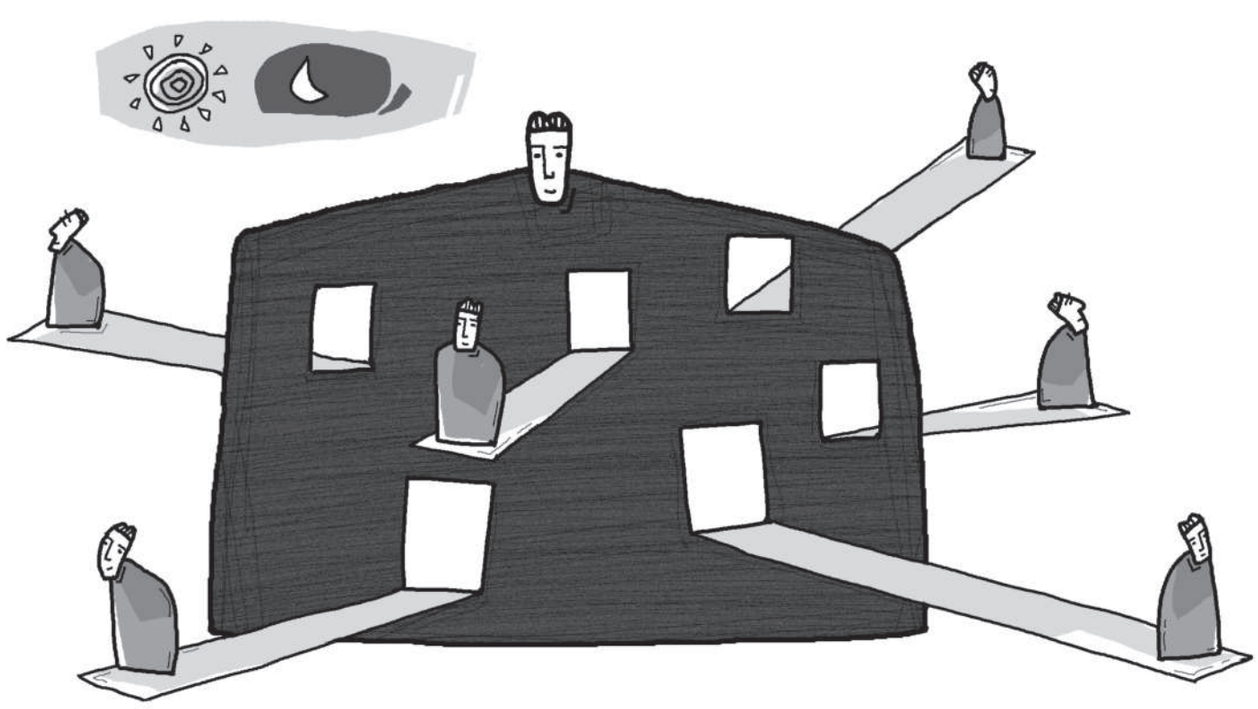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면에 놓고 들어가는 작업이 정에 드는 방법이다

☞ 19면에서 계속

저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그렇습니다. 수명이 짧고 길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우리 이 육체 자체도 실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옷이 주어집니다. 세련되고 아주 좋은 옷으로 입느냐, 또 나같이 이렇게 못나 빠지게 옷을 해 입느냐, 하하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탈로써 옷을 입느냐, 독사의 옷을 입느냐. 그 여러 가지 옷이 많고 많은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경험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탤런트로서 어떠한 배역을 맡을 때, 평상시에 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무슨,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 이래서가 아니라 없든 있든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행을 했고, 어떠한 말을 했고, 상대성 원리로써 폭넓게 살았느냐 폭넓지 못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대로, 자기가 산 대로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배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다' 한다면 그것도 이름입니다. 애당초에 불(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 하여금 우리는 바로 생산처를 개발하게 됐고, 교(敎)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을 전달하고, 통신을 하고 나가는 그 자체입니다. 개미들도 자기네들끼리 속삭거리고, 아주 말들을 잘합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개미도 약은 것들은요, 아주 얍삽한 것들은 굴에서 흙을 파 가지고 나와서 그 앞 턱에다가 탁탁 놓습니다. 그러나 좀 듬직하고 앞을 내다보고 사는 개미는 앞에다 놓지 않고 쓱 나와서 멀찌감치 놓고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인간 자체도 그렇게 얍삽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능수능란하고 지혜롭게, 듬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건 마음 탓입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뒤를 들어 봤어야 알지, 앞뒤를 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어 봐야, 마셔 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 이전에 생활이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종교니까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혜를 넓히려면, 아주 못생긴 사람이든지 얕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여간에, 애라도 똑바른 말을 하면 귀담아듣고 그것을 흘리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뭇잎들도 봄이 되면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무는 겨울 내내 하얀 눈과 비를 다 맞고 그 비바람에 조금도 끄떡없이 인내롭게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인내로움이 없고 불끈불끈 그냥 화나는 대로 해 버린다면 그거는 포근한 화목을 가져올 수도 없거니와 재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오려고 까딱까딱하다가 말입니다, 그 집이 시끄러우면 '에이! 이 집에 들어가 봤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곤 딴 데로 가요.

이 만물이 다 그러해서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를 봐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스승이요, 물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집들을 올망졸망 짓고 사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오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스승이요, 모두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그걸 보고 모두 배우라고 하는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지금 듣고 보고 행하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 모두가 스승이자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망상을 칼로 자르듯이 끊는다면 망상이 끊어집니까? 그것을 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물을 너희들이 아무리 잘라 봐라, 잘라지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생으로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돌아간다는 걸 알면 망상이라고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있으니, 그것을 불가에선 숙명통이라고 합니다마는, '숙명통' 하면 그게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 망상을 끊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시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끊으려고 애쓰고 잠을 몰아내려고 애쓰니, 잠이 몰아내지는 것이며 망상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물은 나같이 살라 하며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초목대로 나같이 살라 하고 저렇게 푸르르게 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애고나 병고, 즉 말하자면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 이 자체가 전부 마음으로 해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처럼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는 모든 거를 재료로 알고 몽땅몽땅 갖다가 집어넣어 입력을 한다면 그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 놓는 겁니다.

나무뿌리가 말입니다, 제 나무의 뿌리가 제 나무를 돕지, 딴 나무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으로 만날 딴 뿌리에다가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뿌리에다가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해서 올리지만, 딴 뿌리에다가 '나, 목이 말라.' 한다고 그게 목을 축이게 해 줍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아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궁색하게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싹이니까 내 뿌리만이 이 싹이 병통이 나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덮여서 못 보느냐? 무명이 덮여서 못 본다 이겁니다.

나는 어떤 땐 길을 걷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알게 할 수 없는 이런 도리를, 말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광대한 법을, 말로는 가르칠 수가 없는 이런 거를 어떻게 책에다 쓰고 어떻게 말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도리도 어떻게, 왕창 한꺼번에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허허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길을 가다가도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해서 말이죠. 부족해서 몸 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껄껄 웃다가도 말입니다. 웃음이 그냥 훤떡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체 생명들 모두가 이렇게 공용을 하고 공생으로서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럴 때는 웃다가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가?' 하고 그냥 멈칫해지고, 걸음을 걸으면서 좀 싱그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어이구! 부족한 내가 이렇게 싱그럽게 웃을 수 있을까? 싱그러운 마음으로써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쯧!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나? 그릇대로 담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나?' 그러고선 옆도 쳐다볼 수가 없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선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면 저 돌부리에 차이기도 하구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자기 혼을 다 불어넣어서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검을 만들지 못하듯이,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이 없죠. 알고 본다면,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빌어도 나를 위해서지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빈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그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가 안됐고 내가 살기가 어지럽고 내가 당장 좋지 못하니까 비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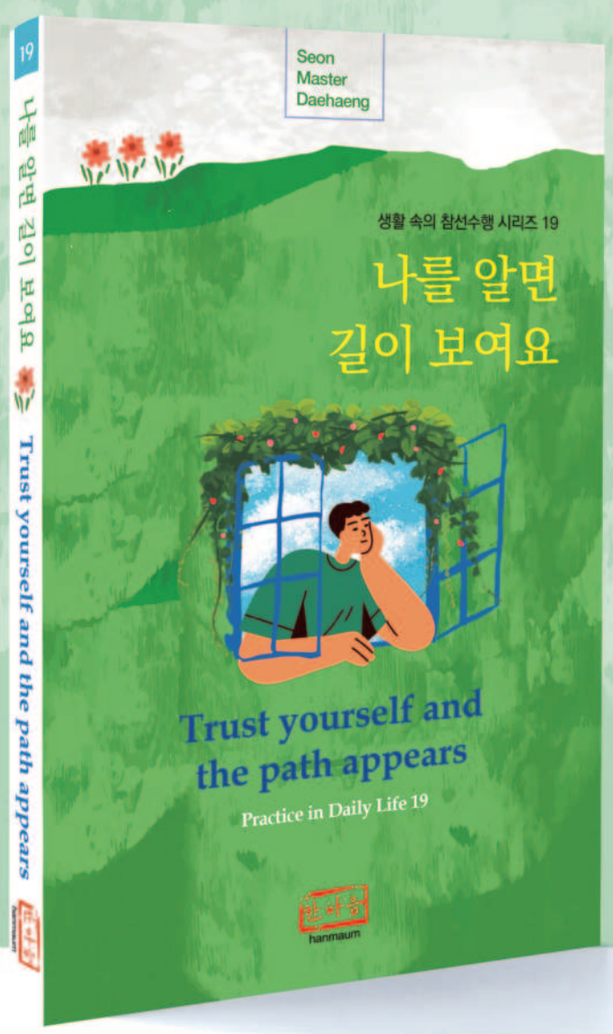
그렇듯이 정작 그렇게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우리 한 식구가 열 명이라도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 불을 켤 수 있게끔 가설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가설은 다 돼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을 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불은 안 들어와요.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니까요,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 깊은 속에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불씨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불씨로 인해서 마음을 내게 되죠.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죠. 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의 주인공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을 못 믿어도 자기를 못 믿는 게 되니,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모든 게 벌어지고 아는 거지 자기가 없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식구들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생활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 주먹만 믿으라는데 여길 가면 뭘 해?' 이러지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주먹만 믿으란다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교과서만 놓고 배운다면 그거는 안 되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가 될 수가 없죠.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구요.

> 여러분이 위로는 일체제불과 둘 아닌 마음을 지니고서
>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 아래로는 그 믿는 마음으로써 채찍질을 한다면
> 아래 내 몸속의 중생들은 스스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9월 5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⑰ 아나빠나 삿띠 3

전면에서 회광반조

"이 도(방법)는 유일한 길(방법)이니"라고 석가모니 붓다께서 천명하신 사념처(四念處) 관찰. 그것은 '아나빠나 삿띠'로 시작한다. "(숨의) 입구 주위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는다" 또는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해 앉는다"라는 〈출입식념경〉과 〈대념처경〉의 언급대로, 처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1)마음에 호흡이라는 대상을 쥐여 주는 것과 (2)그 자리(입구 주위 또는 전면)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아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의식'에만 의지해 평생을 산 중생이 '아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치기란 쉽지 않다. 그 두 가지란 하나는 식(識, 의식 또는 알음알이)이고, 또 하나는 지(智, 지혜 또는 불성)이다. 전자(식)는 습(習, 습관)대로 반응하는 '무명의 아는 마음'이고, 후자(지)는 그 무엇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다. 반응하지 않고 관조만 하는 마음자리에서는 청정한 빛(사물을 꿰뚫는 통찰지)이 방사된다. 반응하거나 동요되지 않기에 부동지(不動地)라 하기도 하고, 또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기에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도 한다. '지'의 마음이 이렇듯 여여(如如)하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 또는 업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지'의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나빠나 삿띠 수행을 통해 '식의 마음'에서 '지의 마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붓다 가르침의 요지는 "그 자리에서 들숨과 날숨을 보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식(識)에서 지(智)로의 전환이 일어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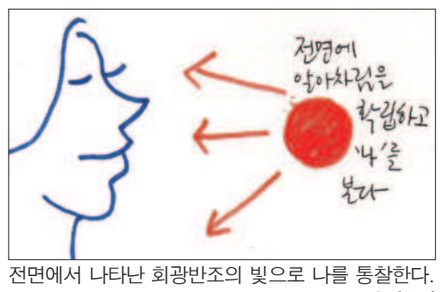
"안팎으로 관찰한다"

인중 자리(숨의 입구 부분)에서 숨을 보다 보면, 그 집중점이 살짝 더 전면으로 나간다. 그래서 가깝게는 한 뼘 정도, 길게는 30㎝에서 50㎝ 전면 지점에서 빛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빛은 회광반조(回光返照, 마음이 대상을 향해 집착해 따라가지 않고 돌이켜 '나' 또는 '본질'을 밝힌다)하여 나를 비춘다. 이런 상서로운 빛이 또 있을까! 회광반조의 빛이 나타나니,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1)의식에서 (내가) 놓여나 긴장이 확 풀린다.(즉,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 (2)그 빛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생긴다. 전면의 알아차림 자리, 그 자리를 경계로 바깥쪽과 안쪽(내쪽)이 생겨 양쪽이 평등하게 관찰한다. 즉, 밖과 안의 순차적 반응 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포착된다.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안쪽이 파르르 반응하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여기서 왜 〈출입식념경〉과 〈대념처경〉에서 "안팎으로 관찰한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알아차림의 지점을 기준으로 '안과 밖'인 것이다. 물론 알아차림이 숙련돼 관자재(觀自在), 즉 '관(통찰)이 자재(자유자재)'하게 되면, 인중 지점이라는 뗏목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된다. 그러면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숨의) 입구에" 또는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전면에서 나타난 회광반조의 빛으로 나를 통찰한다. ©강소연

'만 가지 번뇌'가 '한 숨의 실재'를 못 이긴다

(3)그 빛 속에서 진정 자유롭다. 이 빛은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않고 나를 비추는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이 빛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관심과 주목 또는 속세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된다. (4)이 빛의 자리로 가면 수백 수천 가지 번뇌도 '한 번 숨의 실재(實在)'를 못 이긴다. '오만가지 망상의 환영'은 '한 번 숨의 실재'를 못 이긴다. 그래서 숨에 대한 자각을 통해 현실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숨 관찰의 지점으로 돌아오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또는 과거의 불쾌와 미래의 불안에서 단박에 벗어난다.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진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러한 진리의 터득은 평화와 안도를 선물해 준다.

(5)인중 지점 또는 전면의 알아차림 지점에서 사마타 또는 위빠사나 수행의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또는 양자를 왔다 갔다 하며 수행할 수 있다. 그 지점에 계속해서 집중을 유지하면 사마타의 사선정이 차례로 펼쳐지겠다. 또는 그 지점에서 회광반조해 신수심법(身受心法)의 사념처를 관찰하면 위빠사나 수행이 되겠다.

이상 수행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마타 방식으로 집중점(알아차림의 지점)에 의식을 붙이면→②'나'로부터의 '의식의 분리'가 일어나고→③그 분리를 통해 식(識)이 지(智)로 전환되고→④그 집중점에서 '지'를 밝혀(회광반조해)→(수련을 통해 관자재하게 되면) ⑤내 안에 일어나는 신수심법(사념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무상, 고, 무아'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⑰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채식보다 건강한 음식 섭취 필요

초보 약사 시절의 일이다. 김 아무개 님께 평소대로 복약 지도를 시작했다.

"오늘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약이네요. 평소 고기를 즐겨 드시나요?"
"오늘 절에서 된장국을 끓였답니다."
"아? 스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약력을 보니, 고지혈증약을 복용한 지 오래되셨네요. 계속 드시던 약이지요?"
"네. 덕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계란 노른자, 새우, 굴, 조개, 전복, 오징어 등 해산물들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반찬들은 오늘 아침 텃밭에서 땄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당황한 탓에 정신없이 약을 전달해 드리고 돌아서는데, 직원이 한 마디 쏘아붙인다. "약사님, 진짜 편견 없으시네요. 스님께 고기를 줄이라니."

당시 초보 약사였던 필자는 육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스님들조차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겪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고정 관념 속에서 스님들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과 마음 수양 덕에 건강과 장수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액이 기름져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풋내기 약사의 실수였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막는 나쁜 물질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되고, 일부 콜레스테롤(HDL)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LDL)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과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 수치 관리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세포막과 호르몬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지면서 재료가 남아돌아 혈관으로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쉽다. 갱년기 여성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이 이런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흡수되는 양보다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양이 두 배 이상 많다.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전체의 60~80% 정도이기에 채식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인다고 한들,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면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렇기에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세포막 등 우리 몸 구성 중요성분
포화·트랜스 지방, 동맥경화 원인
고기는 채소 곁들여 적당량 섭취

우리 몸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막아 주는 것이 바로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약인데,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으로 불리는 성분들이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아 혈액 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한다.

그렇다면 식습관을 통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과 튀긴 음식 중 트랜스 지방의 섭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지방은 배출되지 않고 대부분이 인체 내에 그대로 흡수돼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하기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포화지방은 단순히 고기 섭취가 문제 되기보다는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문제가 된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함께 섭취되면 간은 탄수화물을 먼저 처리하느라 포화지방의 대사가 지연되고, 그때 포화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빠르게 전환된다. 고기와 밥, 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습관이 혈관 건강의 큰 적이라는 말이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밥보다는 채소와 함께 먹고, 과하지 않게 먹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약 10년 전 콜레스테롤의 일 권장 제한량 항목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고, 이미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줄이고, 적당량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몇 년 전 태국 스님들에게서 비만이 문제가 됐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인데 공양물이 서구화돼 대부분 스낵류나 단 음료로 제공되다 보니, 스님들이 자연스레 비만에 노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태국 스님 중 48%가 비만이며 이 중 42%가 고혈압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핵심은 육류 섭취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기는 상추쌈. 고기는 깻잎쌈. 밥은 되도록 빼고.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5억 년 버튼

'유정이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 익어 '강미화 神位(신위)'라고 적힌 위패가 좀 낯설었다. 남편 거사님과 이제 겨우 고3인 유정이의 상심에 비할까마는 나 역시 15년 가까운 인연의 깊이에 차오르는 감정을 수습하는 것이 어려웠다. 빈소에 앉아 염불을 마치고 나서 문득 '5억 년 버튼'이 생각났다.

5억 년 버튼은 스가하라 소타의 단편 만화 '모두의 토니오쨩'의 에피소드인 '아르바이트(BUTTON)'에 등장하는 물건이다. 누르면 100만엔(한화 약 950만원)이 나오는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누른 사람의 정신은 어딘가로 공간 이동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깨어 있을 뿐인 5억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끝나는 순간 정신뿐만 아니라 시간도 몸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5억 년 버튼을 알게 된다. 옆에서 친구가 누르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주인공은 그 버튼을 누르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5억 년을 지내게 된다. 5억 년에 걸친 망상과 후회, 허무의 시간을 지나 깨달음과 우주와의 합일에 이른 주인공은, 5억 년이 지나고 마침내 본래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지워진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100만엔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다시 16번을 연속으로 누른다. 80억 년의 방황이 시작되고, 만화는 끝난다.

어쩌면 우리는 5억 년 버튼까지는 아니어도, 70년이나 80년 버튼 정도는 누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육체는 지구밖 미지의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탄생한 이래 끝없이 순환하고 있는 물질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 원소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순환하는 물질의 조합에 따라 나는 어느 생에는 꽃이나 나무였으며, 어느 생은 바위나 강물이었고, 때로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이전 내 삶들이 전혀 기억에 없다. 마치 버튼을 누른 것 같이 말이다.

5억 년 버튼을 누를 것인가, 절대 누르지 않을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하는 핵심은 '버튼을 누르기 전의 나'와 '누르고 나서의 나'는 같은 존재인가, 별개의 타인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의 전생과 현생은 연속된 존재인가 별개의 존재인가 하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만화 속 5억 년 버튼은 5억 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게 하지만, 우리 삶은 결코 홀로 살다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다르다. 내가 죽고 나서 업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세상에 날 때 이전 삶의 기억은 비록 없더라도, 내가 살면서 인연 맺은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과 시간은 주변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정이 어머니 강미화 보살님은 내게 그런 분이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웃음으로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만남이 지구의 시간 동안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어느 생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당신이 남긴 미소에 나의 세상이 더 밝아졌으므로 추모의 글을 눈물 대신 웃음으로 맺으려 한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⑲ AI 시대 창의성 교육의 본질

AI도 못하는 '공감'이 창작의 뿌리

최근 나의 화두는 AI 시대에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다. 우연히 학교 연수에서 배운 동화책 만들기 수업을 듣고 더욱 그렇다. 네 살배기 아들을 위해 '뽀뽀 귀신'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어 주려 단 몇 줄의 프롬프트를 넣었을 뿐인데, 장대한 이야기가 단 몇 초 만에 뚝딱 생성되는 게 아닌가. 더구나 내가 머릿속에 그려 보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놀랐다. 거기서 생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걸 다시 PDF로 만들어 출판사에 보내면 내 이름이 저자로 붙은 정식 동화책이 완성되는 거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 권의 동화책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나의 의도가 반영된 아이디어이므로 창작이라고 우긴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마와 관자놀이의 경계처럼 과연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생성인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 수백 권의 별 의미도 없는 책을 너무나 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못내 찜찜할 뿐이다. 무의미한 정보의 무한 생식이 죽여도 죽여도 되살아나는 영혼 없는 좀비처럼 두렵기까지 하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AI는 과연 지능일까?"라고 물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멋진 영어 발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하며 "지능"이라고 답했다.

"그럼 과연 지능이 뭘까?"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경비행기 여행 중 밀림에 추락해 조난을 당했습니다. 밀림 생활이 처음이라 며칠을 굶다 주변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더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먹이를 구하는 능력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책 수십 권 쉽게 만드는 시대
무기가 지식이면 사용 능력은 지혜
지식 내 것 만들 때 창의성 피어나

우리는 몇 번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를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AI를 과연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뭐든지 척척 대답해 주는 이 AI는 참으로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럼 AI는 지혜 기계일까요, 지식 기계일까요?

밀림에서 조난 당한 사람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껏 준비해 둔 창과 단도를, 멀리 있는 적은 단도로 대항하고 가까이 있는 적은 긴 창으로 대항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무기들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 없이는 절대로 지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지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저절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성취한 지식의 축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술 혁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AI가 아무리 음악과 소설과 영화를 잘 만들어도, AI는 그것을 감상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습니다. 눈물은 공감이며, 이 공감이야말로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창작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들 때, 분명 그 위로 황홀한 무지개처럼 창의성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공직자 종교편향, 방치 말아야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 공공시설인 기념관 내 공간을 교회 신도들에게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했으며, 김 관장은 부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일주일 뒤 서울 사직동 한 교회에도 기념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 줬다. 이 과정에서 김 관장은 직원을 동원해 안내 등을 맡겼고, 일반인에게 거의 개방되지 않는 수장고까지 단체 관람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자, 특정 종교을 위한 직권 남용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직자들이 공공연히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고, 이를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김문수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올해 5월 교육 정책 협약식에서는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기독교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독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 냈다"며 성경을 펼쳐 들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령시가 무창포해수욕장에 모세상을 세우려 했던 것도 공적 자원을 특정 종교 홍보에 활용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즉각적·상시 대응이 어려워 광범위한 종교 편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대로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훼손과 종교편향을 방치한다면 종교 간 갈등은 깊어지고, 헌법 질서마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통한 처벌 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부모에 감사하며 자신답게 살기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는 현실의 삶에 있어 인연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윤회를 인정한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연법을 통해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윤회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한 찰나로 인식하여 수행과 기도를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에 대한 인연과 윤회의 관점을 넘어,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한 부모와 가족,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 또한 인연과 윤회의 관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효(孝) 사상이다. 불교는 과거로부터 출가라는 표현으로 인해 부모와 가족을 등지고 세속을 떠나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출가자를 조상과 부모를 등진 존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며 수행의 토대이다.

'나'라고 할 수 있는 영원불변한 존재인 아트만을 부정하는 불교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며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준 부모야말로 무아의 자신에게서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영원불변한 아트만적 존재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것이 어떠한 힘(업력)에 의해 결정돼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나약한 어린 존재를 부모는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전해 주며 길러 주신다. 그리

불교에서 효는 수행의 토대
대표 의례 백중과 우란분절
부모 인식, 삶의 토대가 돼

고 그렇게 길러진 우리는 점차 성장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신만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인연들과 다시금 관계를 맺으며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갖추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시작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부모에 의해 드디어 참된 자신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효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례가 바로 백중과 우란분절이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와 인연들의 원만한 윤회와 왕생극락을 빌며, 지금 남겨져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들에 의해 이렇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불교적 효의 의례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그 백중과 우란분절이 윤달에 의해 9월에 있게 됐고,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도 곧이어 10월에 이어지게 되며 부모와 인연들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기원은 바로 부모다. 그 기원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나고, 그 기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기원을 바로 알고, 그것에 의지하여 지금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단단한 토대 위에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기원은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단 하나도 아낌없이 전해 주신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효의 올바른 실천일 것이다. 그리고 그 효의 실천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져 그들과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며, 언젠가 떠나갈 우리에게도 그 인연의 불법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적으로 효를 닦는 것이다.

이 가을의 시작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 부모님을 기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인연들에 감사함을 가지며 눈부신 가을의 햇살 속에서 풍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자.

유리창에 자비심을 입히자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쿵!

묵직한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였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삼면이 통창으로 된 다실에서 고즈넉한 주위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시던 와중이었다. 창가로 달려가 내다보니 쇠박새 한 마리가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얼른 밖으로 나가 새를 집어 두 손으로 감쌌다. 부딪쳐 기절한 새를 따뜻하게 감싸 주면 새가 정신을 차린다고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두 눈을 감은 채 비대칭으로 뻗은 다리에는 어떤 미동도 느껴지질 않았다. 체온으론 역부족인 듯해 유리창 너머에 있는 동료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쇠박새 부리에 적셔 줬다. 그러자 부리를 벌리더니 받아먹기 시작했다.

흘려 넣어 주는 물을 잘 받아먹더니 어느 결에 감고 있던 눈을 살그머니 떴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코앞에서 마주했다.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싶은 마음이 그제야 들었다. 새는 눈을 뜨고도 연신 물을 받아먹더니 내 손바닥에 똥을 찍 눈다. 잠시 뒤 꿈틀대는 힘이 손바닥에 전해지고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가 점차 커지는가 싶더니 순간 새는 손을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다실 건너편에 있는 소나무 높은 가지 위로 날아가 앉았다. 그

하루 2만 마리 창 부딪혀 목숨 잃어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로 충돌 줄어
모든 생명 위한 작은 실천 이어지길

런데 어쩐 일인지 쇠박새는 그곳에서 아주 한참을 붙박이처럼 앉아만 있었다. 동료들과 이야기에 잠시 빠져들다 어느결에 다시 쳐다봤을 때 빈 가지가 보였다. 대략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부딪친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지 싶다. 타고난 천수를 누리며 숲에서 잘 생활하길 빌었다.

그런데 빌어 주는 마음만으로는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막을 수 없다. 통창이 있는 한 언제든 어떤 새든 또 와서 부딪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쇠박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거의 느껴지질 않아 놀랐다. 10g 안팎의 무게니 그럴 수밖에. 그런데 이토록 가벼운 새가 그렇게 묵직한 충격음을 냈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 마침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뼈는 온전했기에 쇠박새는 운 좋게 살아날 수 있었다. 유리창은 투명해서 새들이 힘껏 날다가 속절없이 부딪치고 만다. 부딪친 충격에 목이나 뼈가 바스러지면서 목숨을 잃는 새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2만 마리, 일 년이면 팔백만 마리에 이른다. 다행스럽게도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만 부착해도 충돌은 확연히 줄어든다.

멋진 풍광을 즐기고픈 마음에 통창을 달았을 뿐이다. 문제는 투명한 까닭에 유리창이 새들에겐 끔찍한 덫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불 시간에 사물을 두드리는 의식은 불교가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뭍에 사는 생명뿐 아니라 물속 생명을 상징하는 목어, 창공을 가르는 날짐승을 상징하는 운판까지 삼라만상 어느 곳에서든 모든 생명의 해탈을 바라는 마음의 발현이다. 운판을 두드리는 자비심이 산사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社 說

교육은 도구 아닌 미래의 희망
공공성 확립에 불교계 적극 나서야

학교는 미래 세대를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신성한 배움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본령을 벗어나 학생들에게 종교적·정치적 편향을 주입하는 '선교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특정 교단의 극단적 교리와 극우적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설립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는 "대안학교 설립으로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집회까지 주도한 인물이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그의 행보는 학생 교육을 신앙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40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0여 년간 개신교계는 '1교회 1학교 운동'을 벌이며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고,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까지 확보했기에 가능한 수치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바우처 지급 등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앙이 정치를 넘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길러내는 '정치적 도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서 역사교육을 표방하며 실상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 미화와 기독교 교리 교육을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교사들이 현장에 남아 있고, 일부 단체는 학생들을 특정 집회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은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은 건강한 비판력과 다양성을 배울 권리가 있다.

불교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특정 종교나 이념의 편향된 교육은 미래 세대의 시야를 좁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불교계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고 국회와 교육부에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불교청소년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해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가 청소년 교육을 단순한 포교 활동이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 나설 때, 공교육은 중립성을 회복하고 청소년은 보다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